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와 자생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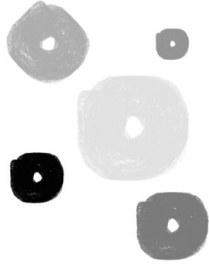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와 자생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  춘천문화재단 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후원 :  춘천시  강원문화재단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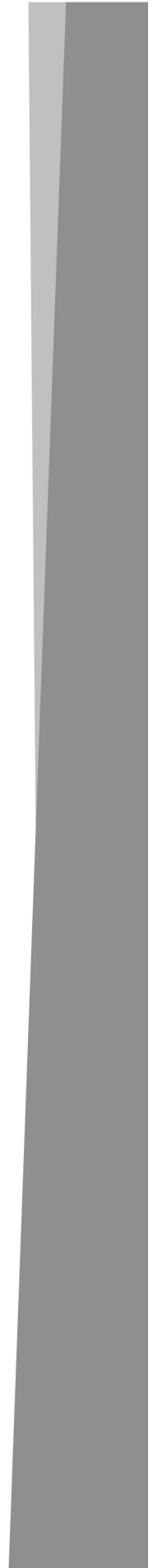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와 자생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  춘천시문화재단 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후원 :  춘천시  강원문화재단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와 자생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

■ 개 요

- 주 제 : 지역문화재단 사업성과 공유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
-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4:00 ~ 29일(목) 14:00 [1박2일]
- 장 소 : 축제극장 몸짓, 라데나 리조트 (강원도 춘천시)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춘천시문화재단, 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
- 후 원 : 춘천시, 강원문화재단,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행사내용

- 1일차 : 사례 및 아이디어 발표 “지식공유페스티벌”

NO	구분	발표 단체	발표자	발표 주제
1	지역문화정책	문화체육관광부	김진엽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2013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2	아이디어	경주문화재단	이동우 전략기획팀장	술잔, 스카프 그리고 컬러링
3	문화예술교육	화성시문화재단	김수현 문화경영팀	'Dream Up!'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4	생활문화	성남문화재단	고성영 문화기획부장	시민이 브랜드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5	마을공동체	부산 사하구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	고지대 달동네 마을을 주민·예술가와 손잡고 문화마을로
6	지역 활성화	부천문화재단	안태호 문화사업팀장	청년, 문화로 지역을 말하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7	협력파트너구축	익산문화재단	이태호 정책연구실장	통과 제리VS동전의 미학 -문화로(路) 신(新)바람, 익산 문화예술의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8	지역문화 거버넌스	춘천시문화재단	강승진 정책기획팀장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재단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9	문화재단 Vision	성북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	'3하4말' 3가지는 하고 4가지는 말자!

- 2일차 : 개방형 집단 토론 (Open Space Technology)

구분	주제	세부내용
session1	문화정책	문화진흥정책, 문화기반, 문화브랜드 등
session2	지원사업	지원체계, 예술진흥방안, 지원사업 관련 행정 등
session3	문화공간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생활문화연계, 공간의 재발견
session4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 세부일정표

일 정		세 부 내 용			
Opening	14:00	2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인 사 말 / 축 사		
지식공유 페스티벌	14:20	20'	발표 1	지역문화정책	2013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20'	발표 2	아이디어	술잔, 스카프 그리고 컬러링
		20'	발표 3	문화예술교육	'Dream Up!'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20'	발표 4	생활문화	시민이 브랜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15:40	15'	intermission		
	15:55	15'	축하공연 - 아이보리코스트 -		
	16:10	20'	발표 5	마을공동체	고지대 달동네 마을을 주민-예술가와 손잡고 문화마을로
		20'	발표 6	지역 활성화	청년, 문화로 지역을 말하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20'	발표 7	협력파트너구축	통과 제리 VS 동전의 미학 -문화로(路) 신(新)바람,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20'	발표 8	지역문화 거버넌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재단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20'	발표 9	문화재단 Vision	'3하4말' 3가지는 하고 4가지는 말자!
		10'	정리 및 폐회 / 투표		
	18:00	10'	숙소배정 및 휴식		
Networking	19:00	120'	저녁만찬 및 networking		
	21:00		자유시간 및 취침		
	08:00		아침식사		
실무자 토론회	09:30	110	실무자 개방형 집단 토론회(Open Space Technology) -문화정책, 지원사업, 문화공간, 문화예술교육 분야별로 진행-		
		10'	intermission		
		30;	토론 결과 발표 및 공유 / 폐회		
Closing-점심	12:30	60'	점심식사 / 해산		



목 차



발표 1 : 2013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5
- 김 진 엽(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발표 2 : 술잔, 스카프 그리고 컬러링	9
- 이 동 우(경주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발표 3 : 'Dream Up!'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21
- 김 수 현(화성시문화재단 문화경영팀)	
발표 4 : 시민이 브랜드다!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31
- 고 성 영(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발표 5 : 고지대 달동네 마을을 주민·예술가와 손잡고 문화마을로	41
- 박 철 하(부산 사하구 창조도시기획단장)	
발표 6 : 청년, 문화로 지역을 말하다!	59
- 안 태 호(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발표 7 : 틈과 제리 vs 동전의 미학	69
- 이 태 호(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발표 8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재단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87
- 강 승 진(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발표 9 : '3하 4말' 3가지는 하고 4가지는 말자!	99
- 김 종 휘(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표 1

2013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김진엽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MEMO

MEMO

발표 2

술잔, 스카프 그리고
컬러링

이 동 우

경주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



술잔, 스카프 그리고 컬러링

경주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이동우

배경사진 _경주떡과술잔치 각테일소

아이디어 01



술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지만 잘 찾아보면 다른 용도가 있다.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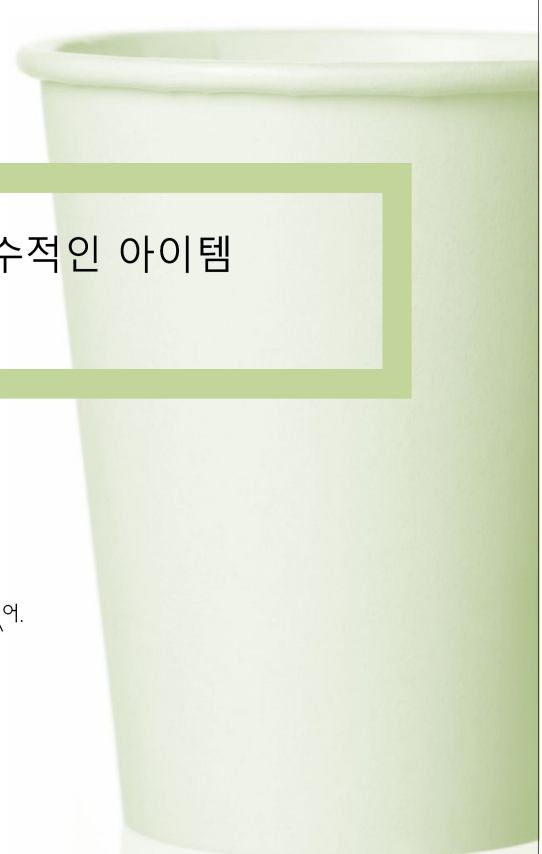
술 축제에서 **시음잔**은 필수적인 아이템
만약 **종이컵**을 쓴다면?



행사장이 종이컵으로 쓰레기 장이 될꼬야!



이런 反환경 축제는 환경단체에 고발하겠어.



문제해결

- 01 **버리지 않는** 시음잔을 만들어 보자.
- 02 시음잔에 **신라**를 반영해 보자.
- 03 시음잔을 **팔아볼까?**



에밀레종



신라토기



해결효과

- 01 쓰레기의 엄청난 감소_親환경 축제
- 02 신라문화의 효과적 홍보
- 03 판매수익 창출
- 04 방문객은 기념품과 추억을 구입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

술과 같은 음료 축제,
나아가 음식 축제에서 원용할 만하다.



버려질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발상!



방문객이 스스로 돈을 지불하고 추억을 사가는구나!



아이디어 02



스카프 scarf

생각하기에 따라 스카프는 쓰레기가 될 수도,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상단사진 _경주떡과술잔치 행사장

문제인식

행사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식된 천 조각들
축제가 끝나면 버려야 하나?



쓸 데가 과연 있을까?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데 ...



이벤트 활용

01 신라 **왕릉**에 스카프 둘러주기



동국대부설 유치원 원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염색한 천을 <식리총>에 둘러주고 있다.

이벤트 활용

02 개막식 테이프 커팅 대신 스카프 매듭 풀기



해결효과

- 01 스카프의 재활용_親환경 축제
- 02 재활용으로 비용 절감, 복지 증대
- 03 참여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의 목적 달성



시사점

축제를 위한 원재료 및 산출물에 대한
'축제 후 재활용' 방안 수립



아이디어 03



컬러링 coloring

컬러링은 통신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

컬러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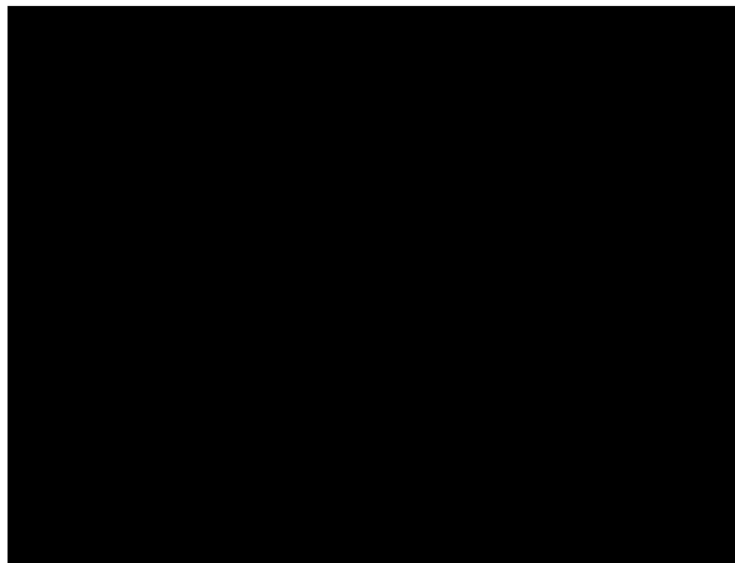
단조로운 기계음의 **통화 연결음** 대신에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이나 다양한 소리로
바꿔 들려주는 통신부가서비스

나만의 통화 연결음
만들고 싶다!



경주문화재단에 전화하면,

이런 **컬러링**을 들을 수 있어요!



컬러링의 활용

- 01 통화대기시간 동안 우리 사업을 **홍보**하자.
- 02 기계음보다 우리 **직원의 목소리**가 좋겠다.



요즘 음원 만들기 너무 쉬워!
음원



컬러링 자체제작의 효과

- 01 자연스럽게 재단사업 **홍보**
- 02 재단직원의 **소속감**
- 03 함께 작업하면서 생기는 **팀웍**



공지사항



뮤지컬 무녀도

2013년은 경주출신의 대만호 김동리 선생의 탄생 100주년인 해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김동리 선생의 대표작인 <무녀도>를 자체인력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뮤지컬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힘으로 만든 작품으로 수도권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3

'Dream Up!'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김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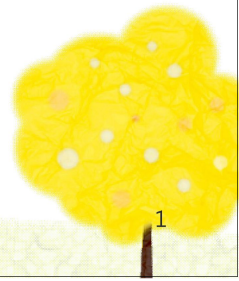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경영팀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시작은...

- ◆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기 어려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돌봄이 필요!
- ◆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 2009년 문화예술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의 감성과 재능, 꿈을 키워주기 위한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사업 시작



화성시문화재단은?

<문화사업>

문화정책: 문화정책조사연구, 문화예술육성활성화, 문화컨텐츠개발

문화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동아리 활성화, 조각공모전, 지역 축제

문화교육: 어린이아트인큐베이터, 소외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 화성문예아카데미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나눔 행복도시
비상하는 여성·청소년 문화활동”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 1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사업개요
- 2 사업 추진현황
- 3 사업 환경분석 & 성과
- 4 향후 운영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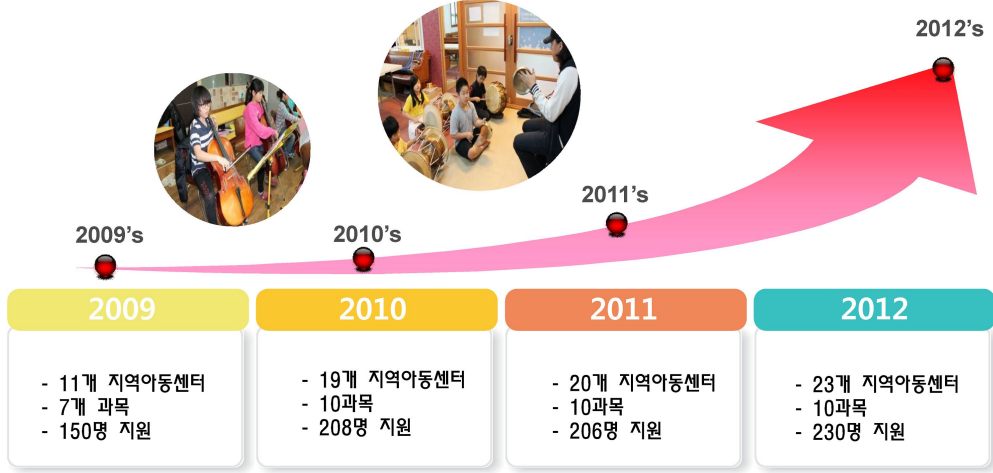
3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1.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소개

소외계층,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건강한 자아형성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잠재된 창의적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2009	2010	2011	2012
- 11개 지역아동센터 - 7개 과목 - 150명 지원	- 19개 지역아동센터 - 10과목 - 208명 지원	- 20개 지역아동센터 - 10과목 - 206명 지원	- 23개 지역아동센터 - 10과목 - 230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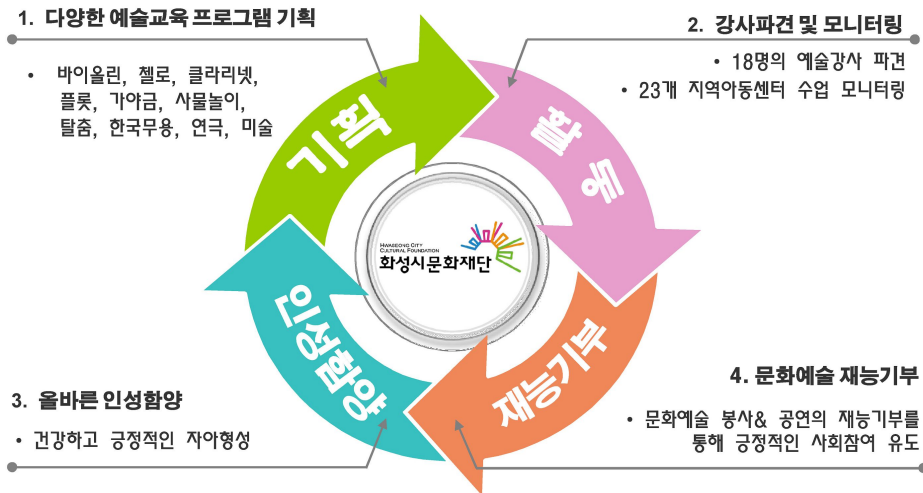
4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2.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사업은?



5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3. 어린이아트 인큐베이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수업 모니터링

-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23개 지역아동센터 수업 현황 파악
- 수업분위기, 강사근태확인, 센터장 면담, 문제점 파악



6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4. 아이들이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연계
프로그램

2. 재단 사업과 연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4회)

- 화성문예아카데미: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 문화예술 동아리: 마술공연



화성문예아카데미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예술동아리 '마술공연'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5. 23개 지역아동센터, 그 소중한 아이들과 그 변화



3. 찾아가는 공연장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봉사&공연 활동

문화예술
봉사&공연

- 문화예술 봉사
 - 에스라행복한 홈스쿨(사물놀이): 요양원 방문
- 문화예술 공연
 - 우리꿈지역아동센터(첼로): 진안초
 - 병점지역아동센터(한국무용): 별말초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6. 아이들은 이렇게 또 한번 성장해 갑니다...



공연 & 전시 발표

4.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공연 & 전시 발표회

- 16개 공연, 7개 미술작품 전시
- 총 23개 지역아동센터 227명 참가



9

CHILDREN'S ART INCUB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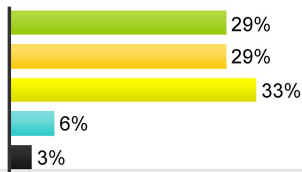
“DREAM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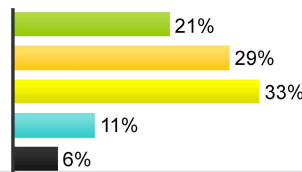
7. 아이들 만족도 조사 I

◆ 2012년 9월 말 기준 총207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4일간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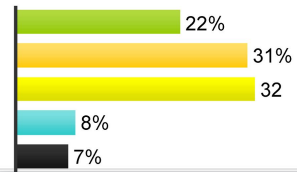
나는 수준이 처음보다 상당히 발전했다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힘들어도 극복하고 계속한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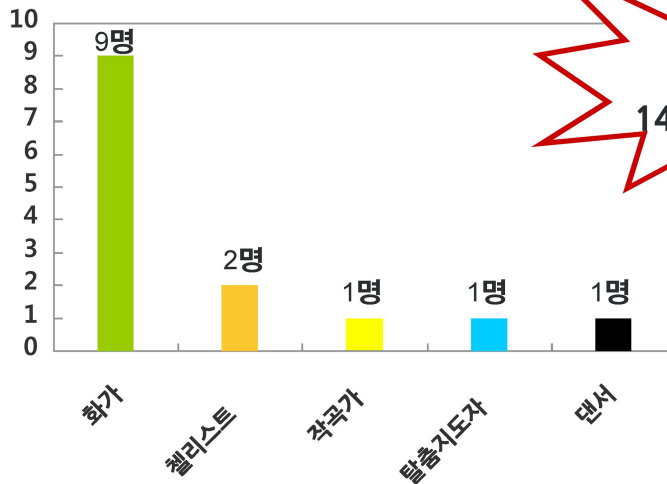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8. 꿈이 생겼어요.

◆ 2012년 9월 말 기준 총207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4일간 설문조사 실시



소중한
꿈이 생긴
14명의 아이들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9. 만족도 조사 II



- 01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 자신감, 성실성, 적극성, 실력 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 02 수업을 즐거워 하고 있어요.
 - 미래의 꿈이 화가로 바뀌었어요.
 - 참여성과 끈기가 좋아졌고 음악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 03 아이들에겐 사랑과 관심이 최고죠
 -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처럼 다가갔더니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집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10. 사업성과



일본 큐슈 TV
미니 다큐프로그램 소개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 잔치 “장려상”수상



문화예술 수업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 열다

01

2010. 4월
『미래의 주역-세계의 아이들』
희망지역아동센터·탈출

02

2010. 6월
이건기-탈춤부분 장려상

03

현재
2위. 화성시 다문화 인구를
다문화 아이들의 낮은 진학률 심각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11. 여기서 잠깐!!!! 어린이아트인큐베이터 과연 문제점 없을까?

2012년 문제점 개선 및 노력 중!!!

낮은 출석률

- 매월 출석부 제출
- 출석률에 따라 차년도 수업 인원 조정

수업시간의 효율성

- 수업 특성에 따라
- 주1회 2시간 또는 주2회 1시간 수업

약기 노후

- 2013년도 예산에 반영 중!!!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12. 희망 등대 역할... 그리고 과제...

“DREAM UP”



문화예술교육

아이들 인성함양

CHILDREN'S ART INCUBATOR

“DREAM UP”



제4회 어린이아트인큐베이터 발표회

영상 클릭!



발표 4

시민이 브랜드다!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고성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시민이 브랜드다!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

고성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1. 사랑방이 만들어지기 까지

예로부터 사랑방은 만남과 문화, 예술 소통이 공간하는 공간이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함께 무리지어 동고동락하면서 종합 창작 공간 역할을 했던 곳으로 오늘날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과 무척 유사하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이러한 사랑방이 가지는 공간적·기능적 의미를 현대적 재해석하여 성남에서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동호회(클럽)들을 사랑방문화클럽이라 정의하고 클럽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를 문화예술이 넘실거리는 이미지로 구축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2006년 출발을 하였다.

그 이전 성남에 이러한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동호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남에서 전국최초로 동호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찾기 시작하였는데 온라인으로 파악되는 동호회는 수월한 편이지만, 오프라인 동호회 찾기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관광서, 사회봉사단체, 각종 문화시설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기관 등에 대해 동호회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성남에는 친목과 배움, 숙련과 공헌 등 다양한 활동 목적으로 구성된 동호회들이 1,103개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조사된 동호회 참여율 전국 2.9%에 대비 성남시민 동호회 참여율의 3.5%에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성남문화의 특징적 차별화된 요소로 활발한 시민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으로 보았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하여 지역을 특징 지을 수 있는가를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문화예술동호회는 장르와 지역에 따라 무수히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동호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 할 것이고, 한 곳에 모인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의 자극을 주고 받는 가운데 감정이 섞여 함께 융화될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처럼 섞이고 모이는 형태가 우리나라 전통의 ‘사랑방’ 과 무척 닮아 있다.

또 하나 성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이 가지는 의미는 성남은 70년대 성남 본도심 개발에서부터 2000년대 판교까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토착민과 도시형성기 이주민, 신도시 이주민 등 많은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전통적인 지역들에서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정서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도시형성기 제조업 중심에서 IT 지식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본도심과 신도심사이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민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규모의 문화공동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동호회를 먼저 네트워크하여 소통구조를 만들고자 하여 탄생된 사업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다.

2.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

2006년 처음 30여개의 클럽지기들의 모임으로 시작으로 2007년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발족 및 출범하게 되었고, 클럽들의 네트워크 촉진 및 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문화공헌프로젝트와 사랑방클럽축제 등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들의 활동 폭을 넓혀 갔다.

사랑방문화클럽 1년간의 주요활동은

1) 사랑방워크숍

- 년초, 클럽지기 모임형태
- 사랑방운영위원 선출(사랑방문화클럽 운영 구조)

사랑방운영위원회		↔협의↔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6인		구성	◦부장 1인 ◦차장 1인 ◦과장 1인
역할	사랑방문화클럽 조직 및 활동 관련 의결 및 집행		역할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지원(발굴, 네트워크 관리, 공간개발, 매니지 먼트 등)
*실행구조로 TF팀 운영				

- 년간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방향 및 팀구성
- 년간의 활동일정 공유, 친목도모

2) 문화공헌프로젝트(사랑방 한마당)

- 클럽간의 일상적인 네트워크 진작 및 발표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자본의 사회자본으로 발전시키는 플랫폼 기능의 사업
- 약 5~6개의 클럽이 1팀이 되어 사업(행사)계획안 제출
- 심사를 통해 계획안 선정
- 사업비 재단에서 직접 집행
- 문화소외계층 및 상대적으로 문화향유기회가 적은 지역을 찾아가 공연, 전시, 교육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 전개
- 2012년부터는 스스로가 '공헌'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하는 것이 부담도되고 해서 스스로 즐기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이라는 타이틀로 변경하여 활동

3) 사랑방클럽축제

- 매년 9월과 10월 중 일주일간
- 문화공헌활동과정에 하나의 팀이 되어 호흡을 맞춘 클럽들이 1년간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약 1주일간 성남아트센터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지역의 공공장소
- 올해 6회째로 2011년부터는 축제의 질 향상을 위해 공연과 전시부분에 각각의 전문가를 접목시켜 주제를 접목시켜 진행

4) 활동보고회

- 매년 11월말 12월 초 한해의 활동성과 및 문제점 공유

5) 기타 사랑방활동

- 아트매칭편
 - 사랑방클럽 회원들이 관내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문화 예술교육 강사로 활동
- 사랑방정오콘서트
 - 관내 관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정기적인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기타
 - 관내 각종 행사 출연요청에 대한 매니지먼트

3. 문화정책으로서 사랑방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도시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문화정책 뿐만아니라 모든 정책에서도 그 해답은 명확하다고 본다.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의 시작은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 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였다.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 등 문화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존 문화자원으로 문화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과, 3차례의 개발과정에서 신도시와 기존 도심(구도심) 간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구도심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고, 지역의 문화정책 또는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으로 이미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발적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네트워크함으로써 도시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문화클럽들에게 발표 및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문화클럽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발표 및 연습공간 지원은 문화클럽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성남문화재단이 연계시켜주는 것으로, 성남에 위치한 공공 및 민간시설을 조사하여 문화재단이 공간 제공에 동의하는 시설들과 ‘사랑방 조인식1)’ 을 맺고 이를 문화클럽과 이어주는 방식으로 여기에 문화통화시스템이라는 선순환적 교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고 있다.

문화통화란 문화클럽과 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시장관계 속에서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연습 및 발표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문화클럽들이 이용하게 되면 문화통화 화폐단위인 ‘넘실’ 이 -가 되고, 시설 제공자들이 공연을 요청하였을 때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가 되는 방식이다.(시설제공자와 사용클럽이 꼭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재단에서 통장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앞에

1) 사랑방지정현황

구분	공간명	구분	공간명
1호	만나교회	2호	보바스기념병원
3호	풀시티갤러리카페	4호	서현청소년수련관
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6호	성남노인보건센터
7호	수진동성당	8호	헤리티지너싱홈
9호	카페열린공간	10호	황송노인종합복지관
11호	공간지정취소(사요마켓_카페)	12호	수정청소년수련관
13호	중원청소년수련관	14호	정자청소년수련관
15호	판교청소년수련관	16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17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언급한 바대로 ‘문화공헌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실시한다. 이때도 문화통화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사랑방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문화공헌활동에 참여한 클럽에게는 재단에서 ‘넘실’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화정책적 의미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 내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

첫째, 사랑방문화클럽은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 공동체 문화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무대에 중심에 서 있다. 현대사회 특히 도시에서 주민간 전통적 공동체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체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동체 관계를 위한 모델들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은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랑방문화클럽은 지역 내 문화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주요한지에 대한 실천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기존에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은 주로 일회적 행사성을 띠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원은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통하여 지역내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생산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기보다는 지원과 소비가 반복되면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구조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문제를 보여 왔다. 이에 비해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통화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활동이 지역내 자체 기반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고 있다.

4. 향후 사랑방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참여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내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들도 많다.

첫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자생성과 자발성²⁾ 확대 문제다. 각 개별 클럽활동은 강한 자생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클럽 간 네트워크 활동의 자생성과 자발성은 기대치 보다 미흡하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대한 클럽들의 주인의식은 아직 약한 수준이다. 이는 재단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에는 재단의 개입도를 높이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또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자치력과 의사결정권을 약화시켜 재단이 제시하는 사안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³⁾ 재단의 개입과 지원 없이 클럽 스스로가 상호 네트워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는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둘째는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문제다.

2007년 사업 추진 이후 클럽들은 문화공헌과 클럽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발표기회를 야외무대, 민간시설, 성남아트센터 전시실 및 오페라하우스 등에서 가져왔다. 이제는 이러한 기회들이 클럽들에게 사랑방클럽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극제나 인센티브로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에 참여해 온 클럽들 중에는 활동 피로감을 느끼고 네트워크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클럽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이 자신이 속한 클럽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클럽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⁴⁾.

셋째, 생활공간인 동네단위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확산과 활동 거점 공간 확보의 문제다. 생활예술을 지향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은 그동안 ‘시’ 차원의 교류 공간에서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예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 ‘동네’라는 생활공간을 단위로 이웃과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사랑방문화클럽이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

2) 여기서 자생성과 자발성이란 활동예산의 독립성과 자기부담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랑방문화클럽이 지향하는 자생성과 자발성이란,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에 있어 사랑방문화클럽이 리더쉽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를 행정시스템과 공적재원을 확보,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한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

3)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생활인’인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그리고 공력이 상당히 부담되는 매개자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한다. 재단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재 재단의 사랑방사업 실무자 2명이 그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것도 역시 무리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는 각 클럽의 개별활동을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클럽들이 연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2008년부터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니,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활동은 미약하다.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이 동네축제 개최와 동네단위 활동을 강화시켜 ‘생활예술 공동체’로 발전하려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⁵⁾

넷째,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이 문화영역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확대, 발전하는 것이다. 현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문화적 취향 중심 공동체’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문화적 취향’은 계층 간 차이와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예를 들면, 사랑방문화클럽들은 사랑방활동을 통해 ‘함께 공연과 전시 ‘를 하지만, 행사 또는 활동 후 일상적 교류와 협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속한 클럽의 순서를 마치자마자, 타 클럽의 활동을 계속 보지 않고, 행사장 정리나 뒷풀이 없이 행사장을 떠나는 현상이 잦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또한, 사랑방활동을 통해 타 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자신과 이웃의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발전되는 양상은 그리 크지 않다. 가령, 신도심과 구도심 거주 회원들은 ‘행사 ‘는 같이 하지만, 구도심 재래시장 상권의 쇠퇴, 시립병원 건립 문제 등 구도심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 ‘가 아니다.⁶⁾ 진정한 시민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지역사회의 ‘공동운명체 ‘로 발전하는데 있어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방문화클럽은 지역사회 갈등을 문화예술로 가려버리는 ‘근사한 포장재 ‘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소통과 교류 ‘라는 순기능만 말하지, 문화예술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발전의 저해문제는 거의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현재 진행형’ 사업이며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 파급효과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보다 많은 시민의 건의 수렴과 참여 확대,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작업과 노력⁷⁾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이 훌륭한 생활예술의 전형으로 전국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⁸⁾

5) 2012년 현재 구도심(시민회관 유희공간) 1개소, 신도심(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내 유희공간) 1개소에 대한 리모텔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초 시민문화클럽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6) 분당 거주민들은 자신들이 ‘성남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분당 거주민들은 ‘성남사람’과 구별되는 ‘분당사람’으로 불리길 원하고 또 그렇게 말한다. 분당 거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들이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남사람’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클럽 연습 공간인 ‘사랑방공간’이 구도심에 있을 경우, 분당 거주 회원들은 이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7) 성남문화재단은 문화부의 ‘2013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내년 연구를 통해 현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8) 2012년 올해 처음으로 전국 11개 지역 19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을 개최했다. 내년 2013년에는 ‘2012 지역전통문화 브랜드 공모’ 대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더 많은 전국의 시민문화클럽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발표 5

고시대 달동네 마을을
주민·예술가와 손잡고 문화마을로

박철하

부산 사하구 창조도시기획단장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주민·예술가와 손잡고 산동네를 ‘문화마을’로



목 차

01



I. 지역현황

II. 사업개요

III. 사업 추진경과

IV. 그동안의 추진성과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I. 지역현황

I - 02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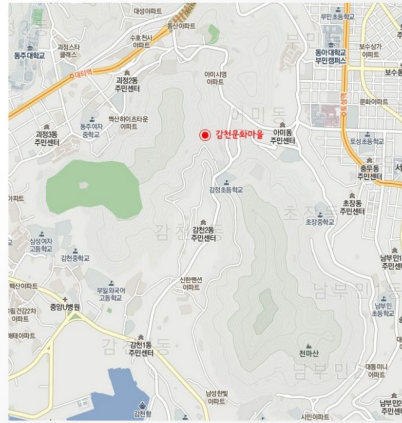
1. 감천문화마을 현황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문화마을)

나. 마을현황 (2012. 1. 1 현재)

- 면 적 : 0.62km²
- 인 구 : 4,429세대 10,110명
 - 65세 이상 : 1,877명(거주민구의 19%)
- 주 택 : 총 4,571가구
 - 단독 3,889가구, 공동주택 682가구
 - 빈집 : 230여동 (전체가구의 5%)+



I. 지역현황

I - 03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2. 지역여건 및 특성

가. 지역여건

- 한국전쟁으로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던 태극도 신도들이 부산 보수동 등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화재를 당해 1955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집단으로 판자집 1천여 가구를 지어 거주하면서 마을이 생성
- 이런 연유로 인하여 '태극도 마을' 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당시 신도들은 '앞집이 뒷집의 햇빛을 가리게 해서는 안된다' 는 미덕을 살려 계단식 마을이 조성되었음
- 20여년 전에는 3만여명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1만여명으로 줄어들었고 폐 · 공가가 늘어나는 등(2009년 300여동) 부산의 대표적 고지대 달동네로 전락하였으며, 공동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다수 있음



I. 지역현황

I - 04



2. 지역여건 및 특성

나. 문화마을의 특성(가치)

- 산자락을 따라 뒷집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건축과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미로 골목길
 - ▶ 커뮤니티 활성화, 근대적 생활환경에 대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생활환경으로서의 가치」
 - 지역의 문화가 남아 지역 고유의 경관을 가진 전통적 가로경관과 파스텔 톤의 색채
 - ▶ 역사의 증인이자 문화적인 인식처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 주택 자체로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그것들이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경치가 개성있는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
- ※ 역사적 가로경관이 가진 가옥 배치 등의 공간질서와 주변의 자연환경까지 포함한 경관은 「지역 주제성」이 되고 있음

II. 사업개요

II - 05



1. 사업목적

- 독특한 경관과 색채가 있는 마을의 공간적 가치에 예술작품을 더하여 원도심의 보존과 문화적 재생을 통한 낙후된 마을을 활력있는 「창조적 재생마을」로 변모
- 아울러, 골목길 텃밭상자 가꾸기, 공중화장실 정비, 악취제거,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설치 등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과 주민공동체 운영, 마을기업 육성, 축제 개최, 커뮤니티 시설건립 등을 통한 공동체 복원 추진

1957년도 모습



현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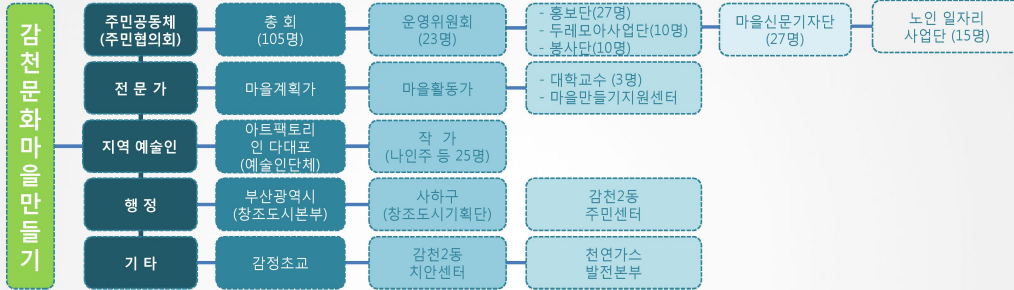
II. 사업개요

II - 06



2. 사업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



나. 추진주체

마을주민공동체	감천 문화마을 주민협의회, 105명 (주민, 예술가, 공무원)
마을 계획가	이명희, 동서대학교(영상디자인학과) 교수, 2009년부터 ~ 현재 활동중
마을 활동가	진영섭, 아트팩토리 인 다대표 대표, 2009년부터 ~ 현재 활동중
예술인 단체	아트팩토리 인 다대표, 진영섭 대표, 사하구 다대동 1522-1 (무지개공단내), 25명 활동
기 타	노인일자리 사업단 15명, 다문화가정 4가구, 마을신문 기자단 27명

II. 사업개요

II - 07



3. 사업추진 전략

가. 마을만들기 및 마스터 플랜 수립

-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 수립(부산시 추진)
 - 수립시기 : 2010년도
 - 권역 : 3개 권역 9개 구역(감천문화마을은 아미·감천구역에 포함)
- 마을만들기 실행계획 수립(부산시, 우리구 공동 추진)
 - 수립시기 : 2012년 9월
 - 구역 : 감천1동 일부 및 감천2동 전역
- 감천문화마을 마스터 플랜 수립(우리구 추진)
 - 수립시기 : 2013년 4월 예정(2012. 10월 발주상태)
 - 구역 : 감천2동 전역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 용역(용역비 7천만원)
 - 수립내용 : 마을의 경관보존 방안, 마을 소득창출방안, 최종적인 목표설정 등

II. 사업개요

II - 08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나. 보존과 재생방안 모색

□ 세미나 개최 : 「감천문화마을을 다양한 시선, 그리고 희망」

- 일 시 : 2012. 6. 28(목) 14:00 ~ 17:00
- 장 소 : 사하구 감천2동 주민센터 회의실(2층)
- 참 여 : 마을주민, 토론자 등 200여명
- 내 용 : 주제발표(3명), 토론(7명)
 - 주제1 : 생활문화자원과 도시재생(우신구 부산대 교수)
 - 주제2 : 공공미술과 마을만들기(백영제 동명대 교수)
 - 주제3 : 슬로우시티 콘셉트를 활용한 명소화 방안(장희정 신라대 교수)



II. 사업개요

II - 09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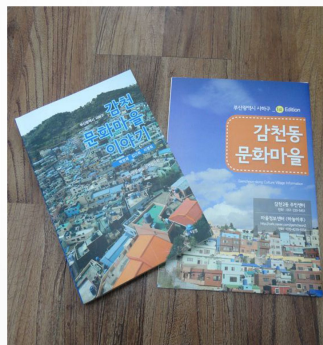
다. BI 개발 (지역 브랜드 디자인 개발)

- 2010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천 2백만원을 지원받아
- BI(Brand Identity) 개발과 마을지도 제작
문화마을 스토리텔링 책자(감천문화마을이야기) 발간
BI를 활용한 관광엽서, 노트, 종이가방 등 제작·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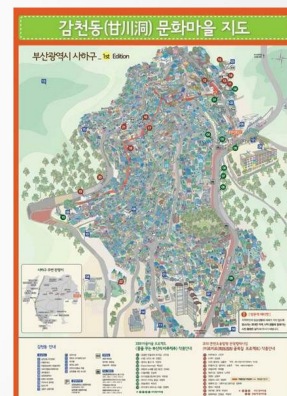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감천문화마을 BI



마을책자



마을지도

Ⅲ. 사업추진 경과

Ⅲ - 10



1. 주민과 예술가들이 손잡고 문화마을 조성 시작

- 2009년 예술가·주민·행정이 합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응모
마을 일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가 당선되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음
- 추진협의체(주민대표, 문화예술단체, 학계, 공무원 등)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무지개가 피어나는 마을' 등 10편의 작품 설치
-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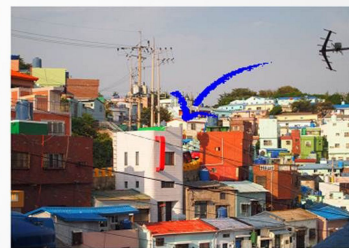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 경과

Ⅲ - 11



2.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추진

- 2010년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2010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공모사업에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
- 국고보조금 9천만원과 구비 4천만원, 부산시 특별교부금 1억원 등 2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테마가 있는 빈집 프로젝트와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었음
- 빈집프로젝트 사업으로 '평화의 집' '빛의 집' '어둠의 집' '사진갤러리' '북카페' 등
빈집 5곳이 예술 공간으로 변모



Ⅲ. 사업추진 경과

Ⅲ - 12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 '하늘마루'는 관광안내소와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동쪽방면으로는 부산도심과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오고 남서쪽 방면으로는 감천항을 포함한 바다의 전경들이 펼쳐지는 명소로 각광



-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는 소통의 골목길을 위한 작품설치(희망의 나무, 영원, 향수, 나무, 마주보다)와 물고기 모양의 화살 표시를 미로미로골목길 걷기 구간에 설치하여
- 마을의 골목길을 작품을 따라 걷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 코스만 개방하여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배려도 하였음

Ⅲ. 사업추진 경과

Ⅲ - 13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3. 어르신들과 작가들의 손길로 「문화마당 조성」



4. 감천문화마을을 닮은 아기자기한 상품을 주민이 제작 판매



Ⅲ. 사업추진 경과

Ⅲ - 14

5.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중점추진

가. 소외계층 활력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공중화장실 등 정비

- 2011년에는 노후주택,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공동작업장, 쌈지공원 등을 만들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자 『셋바람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
- 도시 정비기금을 지원받아 집행했지만 사업 대상지 및 디자인 등의 선정은 마을 콘셉트에 맞게 주민대표와 마을 계획가, 활동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좋은 반응을 받았음
 - 보안등 신설교체 25대, 보안용 CCTV 설치 2대
 - 경로당, 공동작업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9개소
 - 골목길, 위험담장 및 계단 정비 2.15km
 - 쌈지공원 4개소, 폐공간·위험 건축물 철거 17동
 - 노후주택 지붕공사, 도색공사 등 204동 등



Ⅲ. 사업추진 경과

Ⅲ - 15

나. 마을 주민들의 일손을 빌려 골목길, 공동우물, 쌈지공원 등 정비

- 2011년과 2012년에는 마을 주민들의 일손을 빌려 『방가방가(放家芳家)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2개소
 - 수평골목길 및 수직 계단길 난간대 설치 9개구간
 - 산제당 및 공동우물 보수 2개소
 - CCTV설치 6개소, 쌈지공원 조성 4개소



다. 그리운 나의 집 개·보수 지원

- 2011년과 2012년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인 『Home my Home 프로젝트』를 추진
 - 순환주택 5개동 조성하여 주택 리모델링 기간 중 임시 거주지로 제공
 - 저소득층 노후주택 43동 리모델링 등



Ⅲ. 사업추진 경과

Ⅲ - 16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6. 독지가 도움으로 친환경 가로등 교체

- 야간에 불이 켜지면 계단식 마을이 황금빛으로 반짝인다고 해서 「**황금마을**」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음
- **2012년 1월** 글로벌 기업인 미국적 회사 GE사의 기증으로 나트륨 보안등 21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한 것을 계기로 나머지 42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마을 외곽의 모든 보안등이 LED 조명등으로 교체 하였음



7. 커뮤니티 센터(감내 어울터) 및 마을기업(감내 카페) 오픈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마을내 공중목욕탕을 문화가 흐르는 휴식 문화공간으로 재생
 - ▷ 갤러리, 아트숍, 체험공방 등으로 사용 (**2012. 8. 1 개관**)
 - ▷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로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문화 소통의 장이 되고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 마을기업인 감내카페도 **2012년 6월 문을 열고** 주민들의 손으로 운영
 - ▷ 마을 소득창출은 물론 주민과 방문객의 소통 공간으로 역할



Ⅳ. 그동안의 추진성과

Ⅳ - 17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1. 떠나는 달동네에서 활력있는 마을로 변모 ▷ 저명인사 등 연간 7만여명 관광객 방문



세계적인 건축가 디오니시오 곤잘레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방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문



서필언 행정안전부 차관방문



부산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35명 방문



일본관광객 120명 방문

IV. 그동안의 추진성과

IV - 18



2.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 개최 > 2011년, 2012년 2회 개최, 각 9개국 20명씩 참여



오프닝 행사



마을벽화 그리기(2개소)



마을잔치



감정초등학교 태권도 교실 참여



감정초등학교 다문화교육 등



마을 꽃길 가꾸기

IV. 그동안의 추진성과

IV - 19



3. 일자리 창출과 주민공동체 형성 > 일자리 제공 30명, 주민협의회 105명



주민협의회 정기총회



마을주민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자리 사업단 창작공예품 생산 (도자기)



산복마을합창단 창단



마을신문기자단 운영



먹거리 개발을 위한 맛자랑 콘테스트

IV. 그동안의 추진성과

IV - 20



4. 대외적인 호평 및 수상

- 도시대상 수상(2011. 10월),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2011. 7월)
- 2012년 지역전통 문화브랜드 선정(2012. 11. 6),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2012. 11. 27,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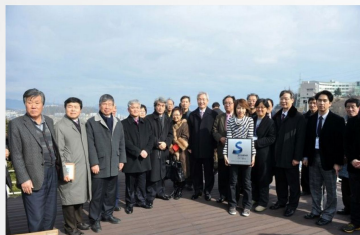


IV. 그동안의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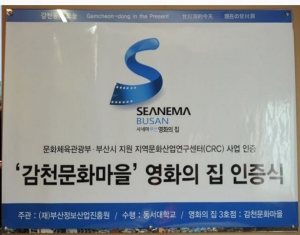
IV - 21



5. 영화촬영 및 방송, 신문 등 언론 보도 > 영화의 집 3호점 인증, 영화 5편, 드라마 1편 촬영, 300여회가 넘는 호의적인 언론보도 등



영화의 집 3호점 인증



KBS수목드라마 적도의 남자 촬영



〈헤어〉 2007



〈그녀에게〉 2009



〈카멜리아〉 2010



임태웅 주연 네버엔딩 스토리 영화촬영

IV. 그동안의 추진성과

IV - 22

6. 전국적인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부상 > 국내외 벤치마킹 쇄도



중국청화대학 계속교육학원 12명 방문



우간다 지방정부 단체장 20명 방문



탄자니아 지방정부 단체장 15명 방문



대구. 서구청장 방문



창원시청.마산합포구 노산동 주민 70명 방문



춘천대학교 학생 100명 방문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V - 23

추진 목표

- 독특한 장소성을 살려 지구단위 계획 또는 주민자율 경관협정 등을 통해 마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복원함과 아울러
- 건물 보수, 기반시설 및 문화 특화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도 병행하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소득창출 방안도 강구
- ➔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자립 마을로 조성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1.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추진중)

- 수립내용 : 마을의 경관보존 방안, 마을 소득창출방안, 최종적인 목표설정 등
- 추진상황 : 2012. 10월 용역발주, 2013. 4월 용역준공 예정(용역비 : 7천만원)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V - 24



2.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중)

- 주요내용
 - 마을경관 보전을 위한 방안 규정, 주민협의체를 통한 행.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 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규정
- 추진상황 : 2012. 10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13. 2월 의회승인 후 조례 시행 예정

3. 주민협의체 법적단체로 육성(추진중)

- 현 황 : 회원 105명(운영위원 23명)
- 추진상황 : 국세기본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 신고(2011. 8. 23)
 부산시 예비사회적 기업 선정(2012. 9. 11)
 기본재산 2천만원 확보(2012. 9월)
- 향후계획 :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추진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V - 25



4. 기반시설 및 특화시설 확충

가. 기반시설 확충(추진중)

- 도로개설(3개소) : 통과도로, 소방도로, 회차로
- 주차장(2개소) : 대형버스 1, 일반 1

나. 문화 특화시설 확충(추진중)

- 작은 박물관(1개소), 작은 미술관(5개소)
- 포토존(3개소), 우물복원(1개소)

다. 편의시설 및 소득창출 시설 확충(추진중)

- 쉼터 조성(4개소), 공중화장실(1개소)
- 맛집 및 공동작업장 조성(1개소)
- 다목적 센터 건립(건물 291.4㎡)
 - 지역아동센터, 복지공간 등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V - 26



5. 감천문화마을 마을기업 유치·육성 추진(추진중)

- 사업부지 : 1,783㎡(현재 부지매입 추진중, 7억원)
 - 주민공동 생산 및 민간기업 투자형 마을기업 유치
 - 주민 일자리 창출 및 마을소득 증대 기대

6. 커뮤니티 광장 조성(추진중)

- 부지면적 : 800㎡
- 유치시설 : 미니 무대(차양시설), 광장, 파고라, 체육시설 등
- 사업비 : 8억
- 시설활용
 - 상설공연, 전시행사
 - 축제 등 다양한 행사
 - 운동, 주민휴식 등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V - 27



7.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추진중)

- 사업비 : 120백만원(국비 50, 구비 70)
- 추진내용 : 예술작품 10점 설치(평면 1점, 입체 9점)
- 참여작가 : 11명(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지역 예술단체)
- ※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당선(2012. 3월)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V - 28



8. 감천문화마을 지역개발형 축제 콘텐츠 개발(구 대표 축제)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 용역(배제대 정강환교수팀 용역수행 중)
- 사업비 : 20백만원
- 주요내용
 - 마을의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마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화된 축제 개발
 - 마을 수익창출 콘텐츠 및 전략방안 제시
 - 지역 특산물, 축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하여 차별성과 경쟁력 확보



※ 금년도 골목축제 시 1만 6천명 참관(성공적인 축제개최 평가)



V. 금년도 사업 및 미래비전

V - 29



9. 전통 우리신 「화해」 교육·전수관 조성(추진중)

- 사업비 : 4억(국비 2, 지방비 0.9, 자부담 1.1)
- 사업규모 : 건물 75.28㎡
- 조성내용 :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화해장 안해표 선생(감천 출신, 현재 거주)의 전수 공간 조성
 - 전수관, 교육관, 체험 학습장 등
- ※ 행정안전부 지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선정(전국 25개사업 중 부산은 우리구가 유일)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감사합니다



감천동 문화마을을 나무토막을
이용해 묘사(나인주)



일요일 아침산책(나인주)
- 감천동 문화마을을 묘사

감천문화마을



청년, 문화로 지역을 말하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안 태 호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청년, 문화로 지역을 말하다

-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

안태호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경제는 언제나 빈사상태에 빠져 도무지 헤어날 줄 모르고 사회는 온통 무기력에 휩싸인 것처럼 보인다. 지역이라고 다를 리 없다. 긴 세월 중앙의 ‘식민지 역할’을 강요받아 왔기에 몰락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은 더욱 깊기만 하다. 세계 경제가 코너에 몰리며 대안으로 꾸준히 이야기되는 것이 사회적경제다. 그런데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걸까? 또, 사회적경제와 문화와 연계지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천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이 한창이다. 부천문화재단의 사회적경제 논의는 2010년부터 진행되어 왔고, 사업도 꾸준히 벌였다. 재단은 2011년부터 매개인력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부천의 문화적 활력을 위해서는 청년 기획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재단은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의 여파로 진행된 자유예술캠프의 기획자들을 불러들였다. 이들과 함께 기획자 양성 플랫폼인 ‘자유상상캠프’를 열고 부천에서 활동하는 젊은 기획자를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후 자유상상캠프는 재단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활동을 벌이며 청년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했다.

재단이 올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2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위탁받으면서부터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고 있다.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개요는 간단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 부천문화재단과 같은 위탁운영기관이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팀들이 있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팀을 꾸린다. 위탁운영기관은 이들을 선발하여 각 팀들을 교육하고, 실제 사업을 벌이기까지 인큐베이팅을 진행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의 전체를 총괄한다. 전국적으로 350여개의 창업팀들이 20개의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320여개의 창업팀들이 육성되었다.

구분		기관명
권역별 위탁운영기관	서울·강원 권역	사단법인 씨즈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함께사는세상
	경기·인천 권역	재단법인 사회적기업경기재단
		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대전·충청 권역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대구·경북 권역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부산·울산·경남 권역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전라·제주 권역	사단법인 광주NGO시민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종별 위탁운영기관	문화·예술 분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보·통신 분야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표 16 2012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현황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분야를 위탁받은 기관은 전국에서 두 개 뿐이다. 지역에서 청년들과 만난다는 것, 그들과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경제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매력과 강점이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은 청년기의 성장통을 감성적으로 드러낸 유행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스펙과 취업에 대한 압박, 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장기화 앞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좌절감을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 의례처럼 사고하는 기성세대들의 인식은 이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에는 자포자기를 내포한 현실진단은 있을지언정, 불안정한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실려 있지 않았다.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기운 넘치는 시기다. 풋풋한 에너지와 패기가 청년기의 것만은 아니지만,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은 시선으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시절이다.

이런 청년들의 특성은 사회적기업과 잘 맞아떨어진다.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아름다운 가게’나 재활용 악기를 활용한 공연과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리단’, 가난한 이들에게 소액대출을 해 주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등의 사회적기업은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오르내리는 이름이 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지자체 단위에서도 경쟁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나서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은 왜?

종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으며 마치 이 둘이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당연하게도, 그럴 리는 없다. 다만 환상은 경계하되, 사회적경제가 이야기되는 맥락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전문 사회적기업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644개 중 96개(약15%, 2011년 12월 기준)로 2007년 3개, 2008년 8개, 2009년 7개 단체가 인증 받은 것에 비해 2010년 한 해에만 총 49개 단체가 인증 받았으며, 2011년에도 31개 단체가 인증 받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회적기업,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전문 사회적기업인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 가능하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고난은 이미 지독하게 오래된 문제다. 많은 예술가들과 문화기획자들이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받은 채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가 오래된 고립을 단숨에 타개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생존과 자립을 위한 계기들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전까지 예술은 ‘골방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식으로 별이행위’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다. 모든 예술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지점에서 예술이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문화예술전문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강조되는 지금, 사회적기업의 운영방식은 문화예술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만들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청년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자질을 길러주고 여건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천문화재단은 2012년 문화예술분야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13개의 청년팀을 육성중이다. 국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1, 2호인 ‘노리단’과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뼈대는 세 가지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사업비다. 팀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비는 각 창업팀들이 자신들이 꿈꾸던 사업

모델들을 실현해 보고,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물론, 재원의 성격이 보조금과 지원금의 사이 어딘가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관계로 예산사용이 그리 만만치는 않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이마저도 하나의 수업이고 훈련이 된다.

두 번째는 공간의 제공이다. 창업팀들은 대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가 많아 손에 쥘 게 없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함께 모여 궁리하고 머리를 맞댈 공간이 갖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침 부천문화재단은 인큐베이팅 공간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용공간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 창업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상근멘토로 대표되는 멘토링 서비스다. 사회적기업을 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긴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느 시점에 누구와 함께 손을 대고 만들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처음 가보는 지형을 알려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라잡이로 멘토가 지원된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원투펀치라 할 노리단과 자바르페의 핵심인물들을 멘토로 파견받아 실제 창업에 이르는 길은 물론, 사회적경제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재단의 기획자들과 파트너들의 경험 역시 멘토링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자원과 네트워크의 연계다. 사업과 활동의 기회라는 것은 홀로 오거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기 마련이다. 부천문화재단은 창업팀들이 자신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기회를 통해 활동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안팎의 자원들을 연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연계작업은 재단이 크게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노리단에서 청년팀까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부천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준비해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리단과의 파트너십이다. 2010년 말부터 재단은 노리단과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일본 문화예술워크숍 박람회 CANVAS 출장을 함께 만드는 등 공동행보를 조직했다. 이후 재단의 중재로 노리단은 부천시의 주요 축제들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기회를 얻었고, 인천공항공사와 새롭게 만들어낸 사업단이 재단과 함께 활동하게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주민들이 자신들이 온 땅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직업으로서의 예술단을 지향하는 다문화노래단 몽땅은 얼마 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물론, 이 과정은 노리단이 지역과 밀착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와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천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의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줄 그룹이 필요했고, 노리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맺으며 성장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다.

노리단은 2011년 부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부천으로 근거지를 옮긴 후, 청년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역곡북부시장에서 문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국 최우수 시장 선정에 역할을 했다. 올해 부천국제판

타스틱영화제에서의 거리행진은 역동적인 진행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몽땅’ 역시 부천문화재단의 협력과 지원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쑥쑥 성장하고 있다. 각종 공연과 축제기획, 교육, 워크숍 등등의 분야에서 노리단만의 노하우와 경험은 부천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노리단과의 연계 뿐 아니라, 부천문화재단은 그간 꾸준히 문화예술분야의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왔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는 ‘8ink’, 친환경 소재로 생활용품을 만들어내는 ‘소잉마미’, 취미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하비뱅크’ 등 청년팀들이 재단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중 하비뱅크는 2012년 부천형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단과 함께 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의 학습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점프’도 문화재단과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가고 있다.

청년창업팀, 없는 거 빼고 다 있다?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팀은 공연사업부터 시작해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협동조합까지 다양한 장르와 영역을 포괄한다. 우선, 공연팀으로는 밴드음악을 바탕으로 한 사업모델을 준비하는 ‘누보공동체’, 국악을 바탕으로 한 퓨전 공연과 음악교육을 진행하는 ‘배꽃 떨어지니 봄이로다’, 다양한 회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공연기획과 실연을 아우르는 제이컴퍼니 등이 있다. 부천문화재단은 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연계해 왔다. ‘배꽃 떨어지니 봄이로다’는 재단의 기획으로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공연을 선보일 기회를 얻었다. ‘누보공동체’와 ‘제이컴퍼니’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꾸준히 공연으로 참여하며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제이컴퍼니는 재단이 운영중인 캠핑장과 문화동산을 활용하여 지역시민들을 위한 참여형 테마파크 놀이터 ‘광끼시티’를 축제방식으로 열기도 했다. 누보공동체는 지역의 가출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개구리 밥차를 응원하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팀명	사업내용	비고
아하! 체험마을	부천의 역사와 문화, 산업 생태 등을 테마로 공공문화시설들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인적자원들을 네트워크하여 문화적 체험학습 콘텐츠를 개발, 지역내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체험학습 지도사로 양성	협동조합
제이컴퍼니	공연 문화 활성화와 인재발굴, 공연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공연문화 콘텐츠 개발 및 기획/컨설팅, 공연배급 및 축제 기획, 진로 상담, 아카데미 및 대관사업	
부천은창조대학	청년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을 통해 청년들의 일삼기-일거리-일자리를 발견하고 마을의 의미를 재구성	

보편적인여행잡지	지역 기반 청소년 교육과 워크숍을 접목하여 대안적 여행 콘텐츠를 안내하고 여행자로서의 필진 네트워크를 형성, 웹과 잡지 형식 발간을 통해 대안적 유통시장 창출	
놀이유랑단	문화예술을 접목한 놀이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살려,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키울수 있는 환경 조성	
세상+문화+틈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실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도모,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참여를 통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식기반 확보, 다문화 대상 강사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모두를 위한 극장	다양성 영화, 공동체 배급, 소셜 펀딩, 독립영화 등을 포괄하는 청년영화인 공정영화 협동조합, 예술가, 기획자, 생산자를 포함하는 생산조합원, 소규모 투자를 원하는 소비자 조합원으로 구성	협동조합
누보 공동체	접근성과 기동성, 친밀성을 갖춘 공연용 탐차를 활용한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장'을 통해 대중들과 예술인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	협동조합
카툰캠퍼스	만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과정 및 교재 개발/제작, 융합형 만화예술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만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소셜에이전시	소셜 마케팅, 클라우드 펀딩, 홈페이지/쇼핑몰, 티켓 예매/발권, 모바일 서비스 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문화 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단체에 제공	사업자 등록
페이퍼툰	환경보호, 바른먹거리, 즐거움, 사랑 이라는 4가지 목표를 만화 콘텐츠로 표현, 1+1 제도를 도입, 만화 콘텐츠를 구매하면 그 구매자의 이름으로 저소득층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만화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무료로 제공	
배꽃 떨어지니 봄이로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국악팀들과 연계하여 취약 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수익 환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 국악기 교육, 국악대중화 문화예술활동 등	사업자 등록
키즈클래식	악기체험, 명곡감상 등 클래식 음악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자존감 향상 도모, 사회성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예술 문화 프로그램 제공	

표 17 부천문화재단 청년 창업팀 사업모델

페이퍼툰과 카툰캠퍼스는 만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다. ‘놀이유랑단’은 청소년들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정서적인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청년들이다. ‘키즈클래식’ 역시 고루한 클래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악기를 만져보는 가까이 다가서는 음악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지역에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별도의 난장을 벌여 아이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키즈클래식은 지역의 한 공동체에서 아이들과 교육을 병행한 공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페이퍼툰과 키즈클래식은 재단이 준비한 문화예술교육주간에서도 참가자들이 조기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팀들도 있다. ‘아하 체험마을’은 마을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체험학습으로 연결해보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포부라면 뒤지지 않을 ‘모두를 위한 극장’은 불공정 관행이 판치는 영화계를 바꿔나가기 위한 공정영화협동조합을 꿈꾼다. 아하체험마을은 체험프로그램을 사업모델로 하는 만큼, 여러가지 사업모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부천의 들레길 탐방을 조직해 실행하기도 하고, 마을방송을 위한 인터넷방송을 시연해 보기도 한다. 지역 청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밥상모임을 조직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보편적인 여행잡지’는 소비적 여행이 아닌 지역과 관계를 천착할 수 있는 여행잡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소셜에이전시’는 사회적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세상+문화+틈’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파라과이를 비롯한 6개국의 이주민 여성들이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구성했다. 청년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부천은 창조대학’은 부천에서 <투나는 대학>, <원종종합시장은 대학> 등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천은창조대학이 벌이고 있는 지역활성화 사업은 해당지역의 상인들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까지도 움직이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천은 명실공히 문화도시로 국제영화제와 만화축제가 있는 곳이다. 창업팀들은 재단의 지원 아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거리행사 ‘영화로놀장’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가졌다. 또,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도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밖에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지역의 ‘강남시장 마을축제’에서도 여러 팀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다.

최근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하던 독지가의 기부로 담쟁이문화원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 개관을 앞두고 있다. 부천문화재단의 청년 창업팀들 중 아하체험마을, 누보공동체, 제이컴퍼니 등의 팀들은 담쟁이문화원의 지하공간을 거점으로 2년간 무상사용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지금,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공연 및 네트워크 모임을 꾸릴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창업팀들은 꾸준히 지역의 다른 사회적기업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사업의 계기를 찾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교육/문화 사회적기업네트워크와 방과후 학교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 준비중이다.

지역 문화예술의 새 바람으로

청년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절이다. 청년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환경에 주눅들고 어깨가 축 처져있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고장난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처럼 이야기되곤 한다. 부천에서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가들의 모임이 새로 생기는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단숨에 되찾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은 기대해도 좋겠다. 아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이들에게 역할을 주고, 무력무력 자라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발표 7

틈과 제리 vs 동전의 미학
문화로(路) 신(新)바람,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 태 호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문화로(路) 신(新)바람,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이태호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1. 발표목적 및 배경

-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실행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바로 <협력 파트너 체제 구축>으로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 시스템의 중요성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 기초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체제 구축>의 대상은 바로 지자체 공무원(특히 재단 담당부서 공무원), 해당지역 예총과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주민협의체 등도 포함
- 지자체 공무원과 재단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재단의 예산반영과 지자체 문화예술정책 개발 공유 및 조례제정에 의한 지원 등을 위한 협력 파트너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총과 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많은 부분에서 문화재단 사업 실행 시, 협력관계가 아니면 상충(相衝)하거나 충돌할 여지가 충분
- 따라서 익산문화재단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얻어낸 노하우와 아이디어, 과정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타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유도
- 이런 목표를 위해 익산문화재단에서 2010년도부터 추진하여 2012년 올해부터 실행하고 있는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함

2. 발표 내용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

- 경쟁자인가 or 협력 파트너인가? : 공무원, 문화예술인,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 협력 파트너 체제 구축 과정 : 지자체 공무원 및 재단 담당부서 공무원, 예총 및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주민협의회 등 시민 단체
- 단순한 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 익산시 담당부서와의 문화예술정책개발 사례 및 과정
- 문화예술정책개발에 따른 역점사업 발굴 및 추진내용
 - 문화로(路) 신(新)바람,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 가람 이병기 관련 사업(가람 문학관 건립 등)
 - 익산 대표문화상품 개발
 -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 사업예산 확보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과정
-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비전 공유

3. 사업 개요

- 사업명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익산 예술정거장(Ik San Art Station)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개년 사업)
- 사업대상 :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구)이리극장 일원
- 사업예산 : 2012년도 1개년 사업예산 12억(도비 6억, 시비 6억)
2012년 ~ 2016년 5개년 총 투입사업비 60억 예상
- 사업내용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안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문화예술인 및 지자체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주민 공청회 및 선진지역 탐방 등으로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유도
 - 문화예술관련 창작, 소통, 학습, 체험, 참여를 위한 문화공간구축(거점공간+창작 스튜디오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4. 사업 배경

- 익산은 2013년도 호남고속철도와 KTX역 복합환승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어 타 지역의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는 익산역과 인접해 있어 사업효과 극대화 가능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침체되었던 도심의 기능을 재생하고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문화예술 위주의 예술촌 조성 과 젊은 층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주력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방안 및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조직, 민·관·학·재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공유 및 논의로 진행

◦ 문화예술의 거리의 특성

- 주민자체가 기획·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문화복지 공간
-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간운영 프로그램의 탄력성 확보
- 개인활동, 가족활동, 비등록 문화집단 활동, 등록문화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준의 문화활동을 수용하는 공간
-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니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



◦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만들기 방향

- 청소년과 연계한 젊음의 문화복지공간
- 다국적 문화체험과 연계한 문화공간
- 코시안과 연계한 다국적 생활복지공간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목표

- 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 젊음과 청소년 문화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 다문화 체험과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도심지 재생 모티브 확보
- 다문화가족 복지환경 구축



문화로 아름다운 문화 창조 도시, 익산 구현

5. 주요 추진과정 및 내용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20인) 및 추진위원회 13회 개최
- 문화예술의 거리 선진지 탐방 4곳 진행(부산 또따또가, 창원 예술인창작촌, 대구 희망자전거제작소, 광주 대인예술시장 등)
- 익산역 개통 100주년 기념 포럼 개최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지역 <주민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5회 개최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주민 협의회> 구성
- 거점공간(전시장, 공연장) 확보 및 추진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2. 10. 18) : 공연장·전시장 부지 취득 가결
- 예술인창작스튜디오 공간 확보 및 추진
 - ▶ 전세임대 1개소 계약관련서류 진행 중
 - ▶ 무료임대 2개소 확보 (1개소 인테리어 공사 추진 중)
- 거리조각전 및 아트마켓 시행(2012. 10. 27 ~ 11. 26)
 - ▶ 아트마켓 개최 : 2회(2012. 10. 27 / 11. 03. 11:00 ~ 17:00)
- 문화로(路) 신(新)바람 가로변 국화꽃 장식(2012. 11. 6~7)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추진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구성 및 활성화	이명준	(재)익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태호	(재)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서휘석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수	익산시의원(보건복지위원장)
	최주연	익산예총 사무처장
	이도현	익산연극협회지부장
	김경원	사)남북문화교류협회장, 前 소통신문부사장
	오민근	前 문화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이한송	경희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최양수	중앙로상인회장
	김진규	중앙로상인회 총무
	원형복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다문화 담당
	한상철	익산시 중앙동장
	김남희	익산시 평화동장
	유광진	익산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김성도	익산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담당
	박 신	익산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계 주무관
	이상구	중앙동 주민대표
송복희	익산시 다문화지원센터 사무국장	

6. 사업특징 및 성과

- ‘참신과 창의’를 모토로 민·관·학·재단(지자체 공무원들, 지역의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시민 등)이라는 협업 파트너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주체성 확립
- 특히, 재단과 지자체 공무원들 간의 협업을 통해 단순 사업이 아닌, 공동으로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과 대치’가 아닌 ‘상생’의 협력 파트너 체계 구축
 - 조례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 주민협의회(民), 익산시청(官), 전북지역 학계 전문가(學), 익산문화재단(財團) 사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도시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감
 - 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전략 개발 및 문화예술이 발현된 창조도시 건설 가능
- <문화로(路) 신(新)바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주민협의회 구성 및 조례제정

7. 사진자료



8. 기타 공유 역점사업

- 가람 이병기 관련 사업(가람 문학관 건립 등)
 - 2011년
 -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 <2011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개최
 - 2012년
 - <2012가람시조문학제>개최
 -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 문학제 등과 통합추진
 - 2013년
 - <2013가람시조문학제>개최 예정
 - 콘텐츠 자료를 기반, 가람 문학관 건립 등 추진 중
- 익산 대표문화상품 개발
 - 2010년
 - 익산문화원형 발굴단계
 - <2010익산문화 콘텐츠 공모전>시행
 - 2011년
 - 문화상품제작 단계
 - 창작뮤지컬<천년의 사랑 - You are my lady> 쇼케이스 시행
 - 2012년
 - 문화상품활성화 단계(서울아트마켓, 경주, 국화축제 등)
 - 2013년 이후 국내외 공연시장 진출 /복합문화센터 개관
-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 2007년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문화재(한옥)과 문화유산(전통담장)을 특성화
 - 2008년
 - 함라마을 등록문화재 종합정비기본계획 협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위원회 자문

- 2012년
 - 함라한옥마을 활성화 연구보고서 공유
 - 체험단지 착공 및 2015년 이후 프로그램 운영

9. 결론

※<정책개발>과 <협력 파트너 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키워드(Key word)

- 대치 or 경쟁자 < 협력적 파트너 체제 구축
- 가장 중요한 것 = 개별 사업 <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 < 비전 공유
따라서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정책>발굴 및 개발이 중요
→ 역점사업 개발 → 사업추진과 실행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지원책마련
= 조례 제정
- 협력적 파트너 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소통과 공감
→ 때로는 이해, 설득, 논쟁 필요

발표 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재단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강 승 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춘천시·문화재단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Content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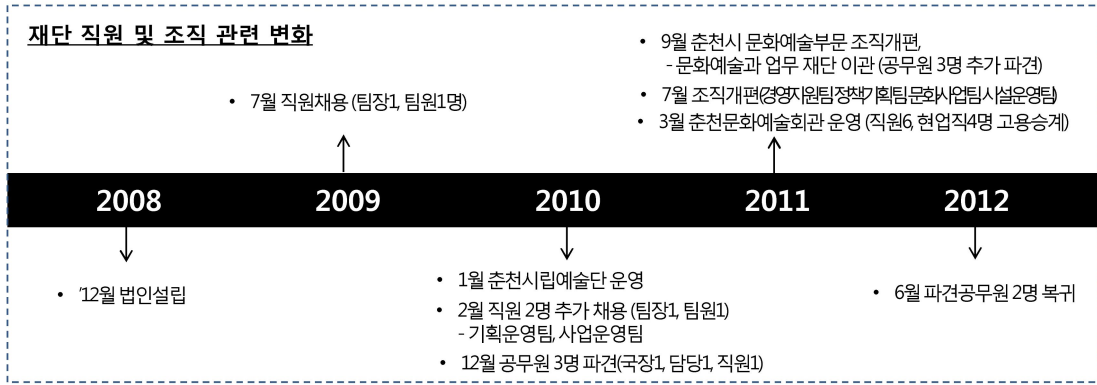
춘천시문화재단 운영 변화



춘천시문화재단 2012 운영현황

- 조직현황 : 이사장(비상임), 상임이사, 사무국장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문화사업팀, 시설운영팀
- 직원 현황 : 총24명 (직원 10, 파견공무원 4, 현업직 4, 계약직 6)
- 주요 업무 :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시립예술단·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 사 업 비 : 78억원(시비)

재단 직원 및 조직 관련 변화



2011.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부문 조직변화



[춘천] 문화예술 체육업무 재단에 대폭 미양 강원일보 | 2011.08.09 (화) 오전 0:33

[춘천] 문화예술 체육업무 재단에 대폭 미양 <춘천시>가 민선5기 출범 뒤 첫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8일 춘천시청 정문 앞 부서배치 안내도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오윤석기자 시 민선 5기 출범 뒤 첫 조직개편...

개편 前

문화예술과 (18명)			문화재단 (3명)		
과장	1	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	1	국장급
담당	4	문화, 예술, 청소년, 문화재	팀장	1	담당급
직원	13	문화(3) 예술(4) 청소년(3) 문화재(3)	팀원	1	직원

개편 後

문화예술부문 (12명)			문화재단 (6명)		
과장	1	문화체육과장	상임이사	1	국장급
팀장	2	문화예술, 문화재	사무국장	1	과장급(증1)
팀원	13	문화예술(6) 문화재(3)	팀장	1	담당급
			팀원	3	직원(증2)

※ 2012년 11월 현재 문화재단 파견공무원 4명, 순차적으로 복귀, 추후 민간 전문인력으로 대체 예정



춘천시 → 문화재단 업무 이관

- 근거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 위탁방식 ○ 연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행사보조사업비 등 소요경비 전액 출연

이관업무

구분	경상 경비	문화행사 및 축제 경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 인형극장, 인형박물관 운영 • 축제극장 몸짓 운영 • 김유정 문학촌 운영 • 예술마당 운영 (예총 운영 지원) • 민예총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 김유정 문화행사 • 봄내예술제 • 강원아트페어 •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 춘천아트페스티벌 • 생활음악인 페스티벌 • 소양강 문화제 • 한일 한중 예술교류전 • 소양강 처녀 가요제 •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기존 문화예술 관련 업무 모두 이관



춘천시문화재단 사업변화 추이

구분	2009 (1년차)	2010 (2년차)	2011 (3년차)	2012 (4년차)
지원사업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장르 중심 9개 부문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시민 생활문화지원사업, 지역문화 창조지원사업) 창작공간 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시민 생활문화지원사업, 재단협력 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시민 생활문화지원사업, 재단협력 지원사업) 기획공모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책사업	춘천문화아카이브 구축 춘천문화아카데미 (정기포럼,)	춘천문화아카이브 구축 춘천문화아카데미 (정기포럼, 문화인력워크숍, 시 민문화강좌)	춘천문화아카이브 구축 지역과 문화포럼, 스터디투어 춘천문화인력워크숍 창작공간 아르쉴 운영 상설공연 운영, 공연제작사업	춘천문화아카이브 구축 지역과 문화포럼, 스터디투어 지역문화인력워크숍 창작공간 아르쉴 운영 상설공연 운영, 공연제작사업
운영사업		춘천시립예술단 수탁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	춘천시립예술단 춘천문화예술회관 수탁	춘천시립예술단 운영 춘천문화예술회관 운영
축제지원			축제 지원 '11. 9월 이관	소양강 문화제 외 10개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문화시설 및 단체 지원			문화시설 및 단체지원 '11. 9월 이관	춘천인형극장 박물관 축제극장몸짓/김유정문학촌 예술마당 (춘천예총) 춘천 민예총
공모사업			신나는 오케스트라	신나는 오케스트라 문화이모작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춘천시 현안사업		페스티벌 인 춘천 2010 월드레저 상설공연		2012 레저대회 열린무대

사업기획과 실행은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지원 및 시와의 협력은 공무원이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실행

NO!!!

우리는 춘천시 문화예술과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재단이 무슨 사
업소도 아니고
... 사업을...
그렇게 던져....

이름만 문화재단
으로 바꾼거지,
문화예술과랑
다르게 뭐야?

민간재단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근무? 민간재단
맞아?

Contents

2

지역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첫번째 변화

지역문화자원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들어가다



두번째 변화

자생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관점

문화재단은 왜 존재하는가?



세번째 변화

정책을 통한 예산분배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과 원칙을 정하다



네번째 변화

지역 문화예술계와 협업을 통한 실행구조 구축
협업 시스템으로 지역문화자원을 경영하다



다섯번째 변화

지속성을 담보한 지역문화인력 양성

결국 사람! 문화생태계의 건강한 싹을 키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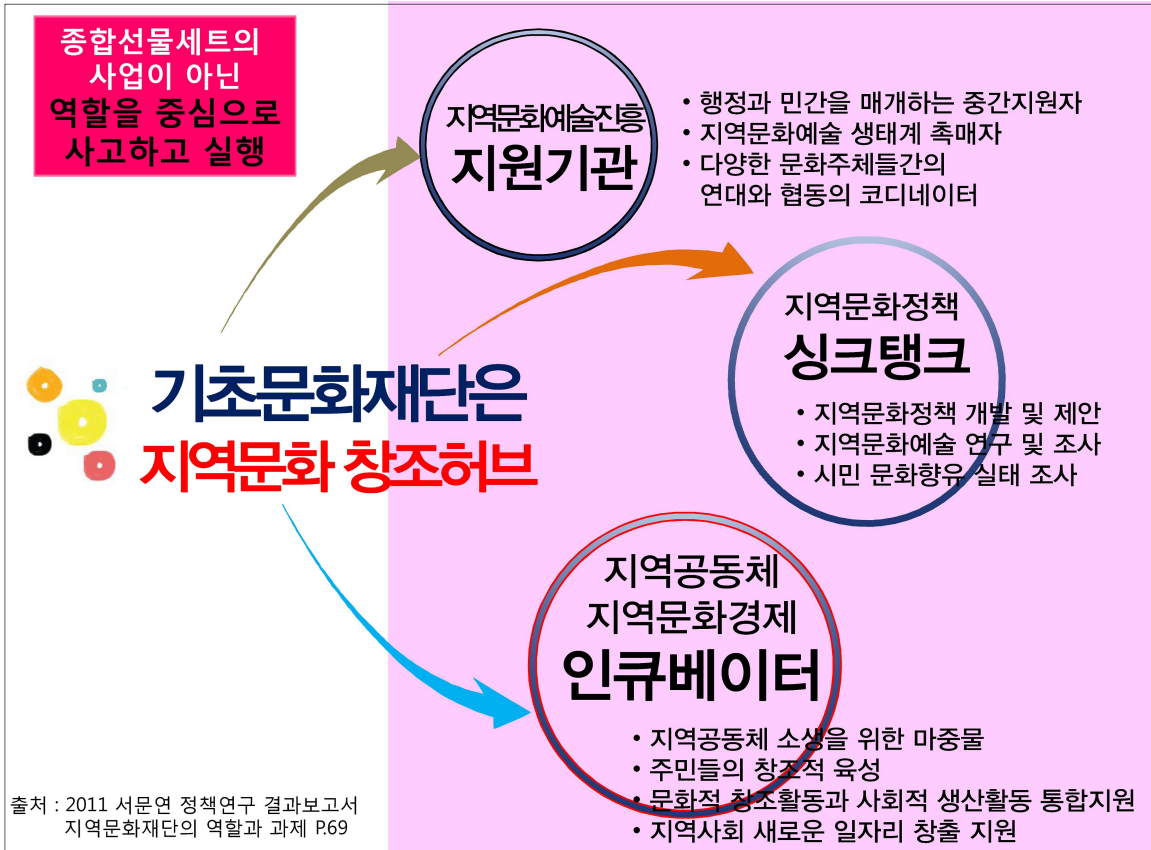
춘천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건강한가?


춘천시민들은 문화예술로 행복한가?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가?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지역문화를 변화시키는 작전타임
조금 더 적극성 담보를 위한 독립성 확보 !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
마음껏 하기 위한 자원 확보 !!!
But, 무엇보다 나부터 우리부터 적극적으로



and,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협업에서 협치로
관리에서 경영으로

※ 거버넌스 : 한 조직이나 사회가 스스로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

Shall we go?



발표 9

'3하 4말'

3가지는 하고 4가지는 말자!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별별시선 12 - 2012.11.6.화. 경향신문

성북‘학’과 성북문화재단‘학’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돌아보니 성북문화재단의 출범은 참 고즈넉했네요. 개소식도, 초대장도, 누리집도 미뤄 둔 첫 날이었지요. 10월 중순에 치룬 성북진경 축제를 빼면 그때나 지금이나 재단 직원들의 나날은 성북‘학’(knowledge)을 찾아 배우는 일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성북의 경제학과 사회학을 익히면서 이 앎을 어느 곳 누구하고도 교류하며 상생할 수 있는 인류학으로 발견하고 호명하는 과정이 성북‘학’이라는 지역학의 쓰임새임을 새삼 느끼면서요. 같은 이치로 성북문화재단‘학’도 만드는 중이지요. 성북에 사는 사람과 성북을 찾는 사람을 더불어 흥하게 하는 문화학과 조직학을 묻고 찾는 것이 성북문화재단‘학’이다 하면서요.

‘학’이라고 썼지만 발품 팔고 진땀 흘리며 이곳의 역사와 생활사 현장들을 몸으로 만나가는 학습의 연속이지요. 요즘 지역문화의 진흥이 추세입니다만 그 요체를 찾아볼수록 답답해지네요. 지역문화의 진흥이란 그 지역이 ‘하던 것’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던 것’을 더 잘 드러내는 일이 바탕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바탕을 이해하면서 그 지역에 ‘없던 것’을 새로 보태는 일이 지역문화의 진흥이었어요. 이 ‘없던 것’도 어느 지역이든 비슷하지요. 쪼개져서 따로 공급되던 일자리와 복지와 교육과 예술을 수요자 중심으로 붙여놓고, 윗사람이 결정하고 앞장서던 판에 아랫사람도 주도하게끔 여지를 넓히고, 안에서 방어하기보단 밖에서 좋은 것을 먼저 찾아내 들이는 것이 새로움의 양식이니까요.

같은 발상에서 성북의 문화 진흥을 위해 성북‘학’과 성북문화재단‘학’을 묵묵히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 ‘학’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어서 성북 같은 다수의 생활권을 아우르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 맞물리는 ‘략’(strategy)으로 추진되어야 성북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의 진흥으로 발현되겠지요. 그러자면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에너지 자립과 복지 기본선 등의 정책 사업이 지역적 삶의 개인 일상에서 마치 깔때기처럼 합쳐져서 실감나게 하는 문화적이고 조직적인 촉매자의 활동이 필히 활발해져야 합니다. 분야별 지원센터와 또 다르게 지역의 촉매 조직 활성화를 꾀한다면 성북의 문화정책과 서울의 문화정책이 합류하면서 비로소 셋길과 큰길이 동시에 날 수 있겠다 싶네요.

하여 성북문화재단의 130여명 우리 직원들이 기꺼이 그런 촉매자를 자임해서 도서관과, 미술관과, 영화관과 미디어센터와, 구민여성회관에서 저마다 지닌 생활문화‘술’(knowhow)을 맘껏 발휘할 때 동원이나 수혜가 아닌 자발적 생비자로서 동네 예술가의 본성을 표현할 성북 시민과 마주하며 환히 웃겠네 해요. 성북에는 이미 ‘하던 것’과 ‘있던 것’이 좋은 상태로 많아서 약간만 ‘없던 것’을 보태어 한해 가량 농사지으면 결실이 제법 열리겠지 내심 설레면서요. 이렇듯 서울과 성북이 상호 작용하는 지역 생활문화의 현장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량의 강화와 함께 다른 한편에선 서울과 성북의 동시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4대 특별 정책 사

업(killer contents)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양 도성의 생태관광 여행을 널리 알리면서 도성 밑에 자리한 마을 공동체 및 지역 예술가를 한꺼번에 활성화하는 것, 간송미술관의 상징성과 통하며 성북동의 미술관과 갤러리들을 엮어 한국의 근현대 미술거리로 활성화하는 것,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심우장을 비롯한 고택이나 역사적 문화 인물의 생가 등 서울의 대표적 미래유산을 묶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성화하는 것, 최근 시민 관람을 개시한 한국가구박물관과 성북 및 종로의 생활민속 사립박물관을 연결해서 서울을 인상짓는 문화외교 명품 코스로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성북문화재단이 준비하는 2013년의 4가지 특별 정책 사업입니다.

11월 중순 무렵이면 얼추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짜놓고서 정릉과 의릉 일대 등 성북의 호젓한 곳곳에서 마을과 경제와 예술을 알아서 함께 일궈왔던 풀뿌리 활동가들을 한분씩 만나려 해요. 이분들에게 열쇠가 있거든요. 경청하고 거든 다음 한걸음 물러서 있으면 자물쇠가 풀리겠지요. 왜냐하면 성북(城北)의 ‘성’이 한양 내부를 지키는 예민한 경계감이라면 그 ‘성’의 북에 있는 ‘성북’은 경계에 서서 비움으로써 두터워지는 성숙미가 아닐까 해서요. 오늘의 다툼이 도드라지는 대신 어제와 내일에 싸인 오늘의 홀가분함이 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여기 성북이거든요.

해서 ‘이야기와 꿈이 많은 성북문화 일구기’라는 성북문화재단의 소명이자 좌표는 오래된 서울의 성북 이곳에서 2013년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고즈넉하게 채워가는 중이랍니다.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성북문화재단 직원들의 약속이 있는데요. 3하4말이라고 3가지는 하고 4가지는 말자는 건데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성북문화재단 영업‘학’(business)인 셈인데 내놓고 알릴 건 아니나 중앙이 아닌 지역이라면 두루 통하기도 하겠다 싶어 따로 답신하겠습니다. •

이야기와 꿈이 많은 성북 문화 일구기

6 전략과제 13 정책과제

1. 성북 문화비전 및 정책방향 수립
2. 문화공공서비스 개발 및 체계화
3.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4. 대상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다양화
5. 인간존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시
6.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환경 구축
7. 지역경제 밀착형 문화인프라 조성
8. 4대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통한 문화균형
9. 주인이 직접 만드는 성북 지역축제 정착
10. 성북 역사문화 가치 구현
11. 책 읽는 성북
12. 3대가 함께하는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13. 주민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 1 비전
- 4 미션
- 6 전략과제
- 13 정책과제

이야기와 꿈이 많은 성북문화 일구기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 성북 조성

수요자 기반의 문화
서비스 체계화 및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활동가 육성 및
조직화

문화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 구축

생활예술 진흥과
커뮤니티 아트
네트워크 구축

주민 참여형
문화 거버넌스 구축

성북 4대권역의 균형있는
지역문화 진흥 및 개발

주민주도의 지역축제
정착 및 문화콘텐츠 개발

성북 스토리텔링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1. 성북 문화비전 및 정책방향수립**
 - 01. 성북 문화정책 중장기 전략 및 액션플랜 수립
 - 02. 문화재단 조직 개편
 - 03. 문화재단 조직 인사 평가 프로세스 혁신
- 2. 문화 공공서비스 개발 및 체계화**
 - 04. 청소년 문화 향유를 위한 성북전시관 운영
 - 05. 아동도서관(가칭) 조성 및 개관
 - 06. 대표도서관 기능강화(비예산)
 - 07. 재단 통합 홍보 마케팅
- 3.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08. 청소년 문화기획자 육성사업
 - 09. 성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 4. 대상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다양화**
 - 10. 성북 문화 최고 과정(비예산)
 - 11. 지역문화 예술단체 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
 - 12. 문화예술형정가 대상 미술 아카데미
 - 13. 도서관 기반 휴먼네트워크 및 나눔활동 활성화 사업
- 5. 인간존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시**
 - 14. 인간존중 문화예술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컨설팅
 - 15. 성북 다음세대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 16. 공무원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비예산)
 - 17.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6.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환경 구축**
 - 18. 주민자치 생활예술 운영 활성화
 - 19. 창작공간 재공을 통한 커뮤니티환경 구축
 - 20. 공연예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습공간 지원
 - 21. 생활예술 커뮤니티 구성
 - 22. 마을예술 창작소 거버넌스 구축(비예산)
 - 23. 도서관의 멘션, 독서회 활성화 :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다
 - 24. 사람이 책이 되는 성북 휴먼라이브러리운영
- 7. 지역경제 활력형 문화 인프라 조성**
 - 25.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영상미디어 창작기반 조성
 - 26. 미술관 '성북메세나(가칭)' 운영
 - 27. 대학생 예술나눔 봉사단 육성
 - 28. 도서관 후원의 운영
- 8. 4대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통한 문화균형**
 - 29. 주민과 함께 기획하는 세계음식문화축제
 - 30. 정릉·의릉 역사문화콘텐츠 조성사업
- 9. 주민이 직접 만드는 성북 지역축제 정착**
 - 31. 성북 할성 축제
 - 32. 청소년 영상미디어 축제
- 10. 성북 역사문화 가치구현**
 - 33. 성북 역사문화 가치 구현
- 11. 책 읽는 성북**
 - 34.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
 - 35. 책으로 하나되는 북 페스티벌
 - 36. '책 읽는 성북' 확산을 위한 도서관 정서 확충
 - 37. 책 읽는 성북 U-도서관조성 시스템 구축
 - 38. '책과 함께 인생시작' 북스타트 운동
- 12. 3대가 함께하는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 39. 창의적 공간활용 콘텐츠 개발
 - 40. 어린이, 청소년, 가족영화, 전용관 운영
 - 41. 영상미디어 창작진흥을 위한 단편영화제 제작지원
- 13. 주민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 42. 성북구립미술관 기획전시 활성화 지원사업
 - 43. 시니어 만파라 댄스 교실
 - 44. 우리 동네 희망요리사 나눔 프로젝트

성북문화재단

4대 특별 정책과제

3대 프로모션



4대 특별 정책과제

1. 역사문화와 문화예술 공동체가 함께하는 한양도성 및 장수마을 활성화
2. 간송미술관 등 성북동 미술문화 활성화 및 브랜드화
3. 심우장 등 성북 고택문화 교류 및 마을 스토리텔링 여행 활성화
4. 한국생활문화(민속) 집적화 및 활성화

3대 프로모션

1. 4대 특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콘텐츠 집적 체계화
2. 성북 글로벌 푸드 원데이 레스토랑 프로젝트
3. 성북문화의 경계없는 소통을 위한 홍보 마케팅 프로젝트

20개 동을 찾아가는 성북문화재단 프로젝트

성북문화재단

교육

-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 도서, 영상,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사업

- 지역 자원 연계 콘텐츠
- 참여형 지역 특화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 지속가능한 실전형 프로그램
-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

어린이, 주부, 어르신
상공회, 각종 직능별 협회
지역 풀뿌리 단체

성북구 20개 동

시장
상가 지역
골목 상권

주민참여

- 주민 주도 문화역량 강화
- 재단 핵심 회원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지역 상권 활성화

문화기반조성

- 동 단위 생활권 문화생활 영위
- 지역 밀착형 콘텐츠 기반

4대 권역별 단계적 시행을 통한 생활 예술 진흥

[시사인 267호 발췌]

동네 쓰레기장, 잔치마당이 되었어요

박학룡(마을기업 '동네목수' 대표)

장수마을 골목텃밭엔 오늘도 어김없이 채소장수 트럭이 찾아왔다. 하나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고, 물건을 고르고 흥정하는 아주머니들 틈에 은근슬쩍 끼어든 할아버지의 참견까지 더해지면서 트럭 주변은 어느덧 시끌벅적 장터가 된다. 나도 슬쩍 끼어들어 한마디 거들어 봤다.

"야~ 진짜 없는 게 없네. 따로 장보러 갈 필요가 없겠어요. 와~ 오징어도 있네."

옆에서 양파를 고르던 이씨 아주머니가 내 말을 받았다.

"아이고~ 소장님이 어떤 일이셔? 장보시게? 그나저나 우리 골목잔치 한번 더 합시다.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으니까. 날 추지기 전에 이렇게 좋은 텃밭을 더 써 먹어야제~" 라며 팔까지 걷어붙이는 품새가 당장이라도 잔치판을 벌이려는 기세다. 왠지하던 아주머니들 시선까지 나한테 쏠리는데 또랑또랑 배시시한 눈매들이 뭔가 협박을 하는 듯, 애원을 하는 듯 아리송하다.

이 자리에 텃밭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다. 원래는 동네 쓰레기장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재활용이든 종량제 봉투든 쓰레기는 차가 다니는 길가 공터에다 가져다 두고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만 얽혀 있는 달동네 골목길인지라 청소부들이 집 앞까지 치워주는 걸 힘들어해서다.

동네 공터는 다목적 복합공간

그런데 지난해 여름 어느 날 구청 직원들이 이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싹 치우더니 웅벽엔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한다는 노란 현수막을 붙이고, 맞은편 건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바닥엔 주차구획선을 그으려 준비하고 있었다. 오씨 할아버지는 잔뜩 화난 음성으로, '그러면 치워주지도 않는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하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레기를 모아두는 건 안된다고 하던 작업을 계속하려 했다. 오씨 할아버지의 고함소리에 몰려나와 가세한 주민들은 수년간 별짓 다 해봤지만 여기에다 쓰레기를 모으니 자칫하면 동네 골목길만 지지분해진다면 작업을 저지했다. 공무원들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고, 답답해진 주민들은 레퍼토리를 더해갔다. '여기가 쓰레기장인 줄만 아느냐, 시장이 너무 멀어 여기 채소 트럭이 서야한다. 여기가 우리 동네 장터'여기 의자 안 보이냐, 우리한테는 여기가 공원이고 텃밭이다'주차장 만들어 봐야 동네 사람들이 못 쓰고 외지 사람이 다 차지한다. 주말이나 명절에 찾아오는 우리 자식들 차는 어디에 대하 하나?' 등등.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공터는 한마디로 동네 마당으로서 다목적 복합공간, 멀티플렉스라는 거다.

좀처럼 승부가 안 나는데 누군가 '다른 쓰레기는 다 치워갔는데, 담장 밑에 쌓여있는 오래된 건축 폐기물은 안 치웠냐?'고 따져 물었다. 건축 폐기물은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에 화가 치민 주민들은 치워주지 않는 건축 폐기물을 흙으로 덮어서 화단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안 쓰는 시멘트 블록을 가져다 폐기물 주병으로 담을 쌓고 텃밭용 흙을 채웠다.

주민들 성화를 못 이 공무원들은 주차구획선 긋는 걸 유보했고, 얼마 후 가을에는 골목 디자인 교실을 거쳐 정식으로 골목쉼터로 조성하게 되었다. 공사 도중에 누군가 가져온 헌 가스통을 할아버지 몇이서 똥땅거리더니 그럴듯한 화로로 만들어 겨우내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우며 매일같이 술판을 벌이셨다. 땀감이 부족한 것 같아 동네목수 집수리 때 폐목재가 많이 나오니까 가져가 때시라고 했더니 아주 신이 나서 자기 집처럼 공사장을 드나드셨다. 이렇게 해서 동네 쓰레기장이었던 공터는 때로는 장터가 되고, 때로는 골목영화관이 되고, 때로는 잔치마당이 되는 진정한 동네 놀이터로 자리 잡았다. 이 공간을 지키고 쉼터 조성 공사에 함께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도 매일 쉼터를 쓸고 닦고 애지중지 관리하신다. 그나저나 이 아주머니들은 진짜로 골목잔치를 벌일 기세인데, 괜히 쉼터를 만들자고 했나보다.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벅차다. 하하.

강화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사 최정미 선생님 인터뷰 기록

@공동체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 저는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보다는요. 어르신들하고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시작하게 된 거구요. 사실 경로당 예산이라는게 늘 빠듯한 예산이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경로당 수는 늘어나고 인원은 없고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 부족한 예산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어요. 문화예술에 개념보다는 어르신들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문화예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꾸 문화예술적인부분을 요구하는데 사실 저는 예술가는 아니고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로 어르신들을 만나다보니까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70~80대 어른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하기 쉬운 게 미술이예요 제일 어려운 게 미술이기도 하지만 아이들보면 공작이라던지 뭐든 걸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미술이잖아요.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다가가려면 미술이라고 하는 게 좋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도자기 그리기 수업 한지공예 칼라공예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오랜 시간에 장사 없다고 그러죠) 예술 쪽에서 보자면 예술적인 형태가 잡히게 된 것 같아요. 예술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하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 좋아하시죠.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 일단 하나 만들어서 갖는다는 것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농촌에 어르신들은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하셨어요. 강화군 노인복지관이 생긴지 5년 정도 됐거든요 어르신들 의지에 의해서 찾아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깨어있는 어르신들이예요. 그리고 나름 강화에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중심에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나름 지역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계세요. 하지만 좀 더 외진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어르신들은 평생 연필한 번 안 잡아 보신 분들도 많고 예술이 뭐야 예술까지도 아니겠지 문화가 뭐야 나 그거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한 번도 해 본적없는데 하다못해 길상쪽에 갔는데 나는 강화읍에 한번도 안 나가 봤어 87세 되신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어르신들 중에 94세, 100세 이런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 분들한테 제가 뭘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한시간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건 대화예요.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차에 다가 사탕이나 다른 경로당에서 선생님 드세요 하고 주신 음료수 같은거 정말 혼자 계시는 할머니계시면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드리고 가요.

@그럼 처음에 어르신들과 어떻게 관계형성을 하셨나요?

- 일단 저는 이 사업을 예전에 했던 사람이고요. 인천 동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

있고요. 강화로 귀촌을 해서 직업도 강화에서 찾았고요. 경로당 사업은 보통 복지관에서 하는데 여기는 강화군 직영이었어요. 그래서 강화군 주체가 됐어요. 군에서 하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군에서 나왔다가 좀 더 열고 받아드리시더라고요. 일주일동안 서른네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녀요. 월요일 1시에 방문했던 경로당을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또 방문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한달에 4번 봐요. 저는 하루에 강화에서 100km를 다녀요. 여기 제 스케줄 수첩이요(빼곡) 경로당 회장님들 전화번호도 여기 다 있어요. 저는 늘 이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낮 동안 충분히 일을 하고 야근을 잘 안해요. 야곡이랑 외포리 같은 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 경로당 마다 달라요. 야곡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거 정서적인 걸 제일 좋아하세요. 반면 길상면 장흥리 같은 경우는 노래 수업을 좋아하세요. 도자기 수업도 많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하고 있어요. 젊은 어머니들은 신나는 거 몸 움직이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댄스 넣어드리고. 그렇다고 우리 경로당은 이거 좋아하니까 이것만 넣어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돌아가야 하는게 세션장님이나 두선생님 사이에 놓고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조금 우리가 싫어도 해야되는 거죠 우리는 좀 싫어도 저기 경로당이 좋으면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좋은데 저기 경로당이 좀 싫어도 거기도 좀 참아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양해를 좀 구해요. 어르신들이 이거 좀 싫어도 선생님이 여기 오셨는데 싫다고 표현하시면 수업하는게 너무 힘들잖아요. 좀 싫어도 좀 웃으면서 맞아달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실 수 있게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서 재료를 구해와요.

@초기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 어려움은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갑자기 예술가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문화예술을 할려고 하니 힘들 수 밖에 없죠. 저희는 형성된 공동체가 문화예술 해보겠습니다라고 프로포즈하는 반대에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에서 오는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부족한 예산이죠. 예산신청을 3천정도했는데 잘라서 천을 받았어요. 잘린 이유는 창의적 예술이 아니라서. 예술하시는 분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인데. 어르신들이 하면 예술이 아닌가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가가 아니란 이유로. 타고나거나 전공을 안했어도 꾸준히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만의 어떤 가치있는 일을 하면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전시회나 입상을 거쳐서 작가가 돼서 예술을 해야만이 예술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작가를 나눠놓고 예술

을 나눠놓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공공기관에서 얘기한 창의는 우리한테 창의가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이 뭘 한다라는 자체가 창의적인 거잖아요. 공공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3세대 연결을해라 1,3세대가 손자와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1세대가 농촌에 없어요. 농촌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복지쪽에서는 1,3세대를 엮는 것은 늘 있는 얘기에요.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애들이 하는 거 보다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는게 창의적이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공공기관과 소통이 안됐던 부분인 거죠. 그런 소통이 어려웠던 것 같구요 그 후에 공공기관 담당자분이 야곡에 왔어요. 와서 보시고 나서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 안되면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상공론을 참 많이해요. 움직여야 일이 되는데 참 자리에 앉아서 서류로만 보고 일을 하려하니깐 그게 안타깝죠.

야곡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동안 공들여서 어르신들과 해왔어요. 공공기관에 어르신들과 문화예술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곳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산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하면 공공기관도 좋고 우리는 좀 잘난 척을 할 수 있겠다 했어요. 니네가 예산 이렇게 적게 썼지만 우리 그래도 이렇게 잘 해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잘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예산을 깎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어르신들은 공동체 안에서 문화예술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더라고요.

예술가들이 하는 공동체 문화예술사업은 막연한 예술을 가지고 공동체와에 소통을 안해본 상태에서 공동체에 들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산은 있는데 공동체가 어렵고 우리는 공동체는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거죠.

계속 하나 해왔던게 어르신들 발표회예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해마다 두명이서 이 어르신들을 무대에 올려서 발표회를 하려니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시회도 하고 첫회는 보름동안 상설 전시회를 했어요. 반응 좋았어요. 오마이스쿨 신현리에 빌려서 열흘동안 전시회했어요. 운동장에서 작은 축제도 했어요. 어르신들이 배웠던 댄스 발표회를 열팀했어요. 야회에서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문예회관을 돈을 좀 주고 빌렸어요. 아침에 준비해서 저녁에 철수해하는 전시지만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전시회를 또 했고, 그걸 2년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노선을 좀 바꿔서 지상전을 할려고요. 그동안에 5년의 발자취를 사진찍어 놓은 걸로 프로그램별로 행사별로 해서 하나의 도록을 만들려고요. 어르신들 얼굴도 좀 넣고 아이디어 좀 주세요. 사진은 5년 동안 찍었으니깐 사진은 많은데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되는데 다른 일들도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저는 도록 만드는 걸 10월,11월 이렇게 해서 12월 안에 끝낼 생각이예요.

도록 만들 때 저는 인터뷰가 필요 없어요. 늘 만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나한테 이런 얘길 했고. 저 어르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이사 진을 찍어올 때는 뭘 했었고 이

때 어땠고 저는 다 알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사진만 보면 저는 내용을 다 아니
 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도록을 만들 생각이예요
 시집을 와서 그 동네에서 30~40년, 많게는 50년 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어르신들 개개인 분들도 엄청 친해요.
 요번에 야곡 자화상 도자기에 어르신들 개개인 사진 다 들어 갈 거예요.

@제일 보람있었던 사례나 일?

제일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보람있고 감동받죠. 예를 들면 80세 어머니께서 나 평생
 이거 처음 해보는데 하실 때. 작년에 문화공연 프로포즈 받아서 처음 뮤지컬 공연 보여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나 이런데 처음 와봐. 난 이런거 처음봐. 이리시더라구요. 거의 어
 르신들이 저랑 해보는 건 다 처음 해보신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흥대 가서 난타공연도
 보여드렸어요.
 낮에는 경로당 돌아야 되니까 아침에 많이 프로포즈 하죠.

이번달말에 프로포즈 한게 끝나서 또 예산이 없어요.
 도록 작업해야되는데 심심하니까 뒤졌는데 공공기관에서 저희랑 유사한 프로그램과 강
 사를 모집을 하더라 그래서 프로포즈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50명 정도 써서 제
 출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맘에 들었는지 50명 더해라 해서 또하고 오늘 또
 전화와서 100명 더하라고 해서 줄지에 200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하고 있
 어요. 또 인천에서 강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있던 강사 선생
 님한테 선생님 이거 하세요. 했죠. 우리 강사선생님 3분을 써서 올렸더니 통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예산
 을 쓰는거죠. 예산은 500정도. 프로포즈 할 리서치는 주로 온라인에서 찾아봐요. 문화예
 술 공공기관이나 문화단체. 그냥 노느니 하는거죠.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어떤 분이세요?

- 신현리 경로당에 90이 넘으신 할머니 한분이 계신데 2년 전에 남산에서 무술공연이
 있었는데 남편분과 함께 올라 가서 보셨어요. 그리고 공연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이 있
 잤아요. 그 시간에 할머니와 젊은 총각하고 두 분이서 찍어드렸더니 나중에 그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남산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긴하지만 내려서
 도 조금 걸어올라가야 하잖아요.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셨는데 내
 평생 처음이고 이렇게 잘 생긴 총각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젊은 총각이 사극에
 서 나오는 옷을 입고 있고 무술공연을 하니까. 그렇게 공연 보고 사진 찍을 때 단체 샷
 을 찍는 거 같지만 할머니,할아버지들 독사진도 다 찍어드려요. 물론 단체샷 찍어서 잘
 라서 쓸 수는 있지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면 거의 짐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희랑 가면 다하세요. 작년에 에버랜드 가서 어르신들 다 태워 드렸어요. 접시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여행가면 어르신들이 재미가 없으시죠. 가족끼리 여행가면 나는 짐지키는 사람인데 우리랑 가면 주인공이신거죠. 다 타고 다 하고 다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는 여행은 안 가시는데 저랑은 가시죠. 여행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올해는 대장금보러 갔다왔어요. 자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번 당첨되면 또 안해주잖아요. 작년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나 받고 복지넷에서 하나 받고 해서 좋았죠. 작년에 갔다왔으니까 올해는 이단체건 못받고 내년엔 또 하고. 눈치껏 하는 거죠.

@기본적인 업무도 있는데 프로포즈 까지 하시는 동기가 있나요?

- 재미말고 더 있겠어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루해서 못하죠. 근데 재밌어요.

@힘든 점이 뭔가요?

- 행사 때 힘들죠 어르신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두달을 매일 밤을 새다 시피 하니까 힘들죠. 경로당 사업을 들어서 다 하다보니까 행사할 때 너무 힘들죠. 복지관에 좀 인력 지원요청을 좀 하면 좋은데 복지관도 바빠서 안 되더라고요. 저희 복지관이 올해 증축을 해서 건물은 인천에서 제일 큰데 인원이 제일 작아요. 한사람의 사회복지사들이 맡아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팽창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국가에서 복지 양만 늘리지 질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 떨어지는 복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양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질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 한 분 한 분 하는 게 좋지 않은 어르신 한번 톡 보고 마느니. 솔직히 저 프로그램 짜놓고 안가도 되요. 강사 선생님 파견 다보냈는데 강사 선생님한테 갔다 안 갔나 확인 문자 받고 오늘 몇 명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물어만 보고 안가도 되요. 그래도 저 가거든요. 가서 출석 다 불러 드리고 어르신들 이름 다 외우고. 어르신들이 이름 먼저 불러드리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이름 불러줘서 고맙네 하세요. 하루에 경로당 세 군데를 가면 어르신들 백 명이라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출석부를 부를 때 이름 옆에다 특징을 기록을 해서 외워요. 깡판치는 할머니들이나 얼굴에 어떤 특징을 기억해서 외워요. 눈 밑에 점이 있다거나 반지를 큰 거를 껴다거나. 수업하다가 욕심 부리는 할머니 있어요. 그럼 욕심꾸러기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다음에 오면 기억을 해서 먼저 이름 딱 불러드리죠. 그럼 그 사람은 내 사람인거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럼 이름 기억해서 먼저 포섭을 해놓죠. 한 경로당에 3~4명씩 갈 때마다 체크를 해놓으면 쌓이고 쌓이죠. 그러면 1년 지나면 거의 다 기억을 하게 되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큰 행사 하다보면 까먹는 거죠. 출석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름 부를 필요 없어요.

@저희도 온수리 경로당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 그 분들을 자주 안 봐서 그래요.

@혹시 거절당해 본 적은 없으세요?

왜 없어요. ‘가. 우리 그런거 안해.’ ‘그거해서 뭐할건데? 그거 돈 쥐?’ ‘이런데 올라면 뭐 사가지고 와야지.’ 사가면 뭘 바래서 이런거 사왔나 그러고.

그래도 계속 가야죠. 자주 보면 안 그래요. 자식들을 1년에 보면 얼마나 봐요. 명절 때. 생일 때. 큰 행사 때.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보니까 그리고 보면 길게는 한시간 두시간 씩 보니까. 수다 떨어주고. 자주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어르신들 집도 어딘지 거의 다 알아요. 시간 많을 때는 논으로도 가요. 가면 어르신들 있으니까 인사드리고. 새참드시고 계시면 같이도 먹고. 수업 안 오시면 논으로 찾아가서 같이 쭈구려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거의 30년대 생이세요. 20년생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입으로 농사를 다 지어요. 그분들이 평생 해오신 게 농사니까. 저는 이제 계절별로 뭘 해야될 때인지 알죠. 지금정도면 아버님들 베풀기 하실 때죠. 예전 베풀기 할 때는 가족이 다 같이 했는데 이젠 사람 불러서 하고 기계가 하고 새참도 안하고 시켜먹죠. 그래서 오히려 베풀기 할 때는 어르신들이 지금은 편하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서리 내리고 콩 수확할 때되면 그 때 되면 더 바빠지고. 12개월 별로 농사 뭘 해야 될 때인줄 아니까 그때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거죠. 어르신들 하고 농사얘기 하고 정치 얘기도 하죠. 좁은 지역 사회다 보니 대놓고 비판은 못하고 찬성, 반대쪽 어르신들 의견을 물어볼 수 는 있죠. 조력발전소 찬성하시는 분들 회장이 하래서 했어 그래서 찬성에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알려 드렸더니 그거 안되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대쪽에서도 사인 받으러 오면 사인하시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하죠. 저는 나라에서 돈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강요할 수 는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릴 수는 있죠.

농촌의 공동체는 특히 더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해야 뭐가 되요. 그래서 저는 맨날 보고 얘기하니까 되는 게 있죠. 얘기하다가 잘 되면 계속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또 화제를 바꿔보고, 매번 가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들어 드리는 거죠.

@들어오시게 된 계기?

- 서울살다 그냥 귀촌한거예요.

@강화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이슈는?

- 나들길이 최우수상까지 탔는데도 지원이 끊겼어요. 저는 나들길을 다녀요. 나들길 되게 잘되어있는 거에 비해서 강화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강화 실정이 무형의 것에 투자를 안 해요. 무형의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많은데. 강화가 살아있는 역사지역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해서 아쉬워요.

그런데 이런 건 지역에 본인들이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해야되요.

강화의 문제점을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왔지만 여기서 정착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강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강화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있어요. 지역색이 썩기 때문에. 여기서 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을 때 강화사람이 아니면 뽑지 않아요. 제가 강화사람이 아닌데도 여기 뽑힌 거는 그 때 강화사람이 신청을 안해서 그래요. 강화 안에서도 지역이 나뉘고 거기서도 다른 지역에서 의원 나오는 사람은 안 써요. 여기서 제가 경력이 많아져도 승진이 안돼요. 강화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일을 해야하는 나이가 아니고. 제가 나이가 좀 있고 재밌고 낮 동안 충분히 일을 하고 저녁에 자유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좀 더 나이가 어렸다면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겠죠.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재밌는 거고 또 재밌는 일을 더 찾아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거고 어르신들과 더 많이 놀려고 하는 거고. 쓸데 없는 거에 에너지 낭비를 안 하는 편이고 제가 좀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에너지를 더 쏟는 편이에요.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해볼려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 이게 재밌다 싶으면 열심히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될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계속할 것인가. 갈등이 오는 때가 올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나이를 확 먹었는데 내가 한 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내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 되는데 향상이 안 돼요. 90년대 말에 귀농이 붐이었는데 귀농한 사람들이 다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다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그 때 제 주변에 귀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 분들하고 어울렸지만 귀농을 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귀촌을 했어요. 막연하게 귀농을 했는데 10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거야 근데 10년이 지났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게 현실인거죠. 이런 귀농을 저도 27살쯤에 만났어요.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죠.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열심히 쫓아 다녔어요. 서울에서 지리산으로 화순으로 장흥으로 일주일이 멀다하고 다녔어요. 야 내려와 그러면 밤새 있다가 새벽에 서울로 올라오고. 저녁 8시에 대구 오라면 갔어요. 그럼 새벽2시에 도착해서 2~3시간 있다가 서울 올라와서 내일하고 그랬어요. 저 그리고 다녔어요. 그랬을 때 그게 지금 내 삶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때 당장 연결되진 않았지만. 20대 때 하

는 일들이 나중에 내 삶의 얼마나 바탕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20대 한창 팔팔하니까 의미도 부여되고 재밌고 사업 따는 것도 재밌고 그렇지만 이거를 끝까지 갈 때 이거로 인해서 내 삶이 해피한지 안 해피한 지 알아야 된다. 제 나이가 지금 43살인데 이거를 한지 15년 됐어요. 그치만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한 거예요. 그때 재밌었지만 귀농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를 한 거는 내가 60살 이 되었을 때 편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복지관 같은데서 자문 같은 걸 했으면 좋겠고 우아한 노후를 꿈꿨어요. 원래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었지만 사회복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일 하는 게 재밌지만 그 것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내 인생의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어떤 전환이 되려면 확실히 전환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이 일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만들어야 해요. 여자들이 참 짧아요. 남자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이일로 사회적으로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자들이 계속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가정을 가져야 되고, 물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누가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엄마예요.

저는 이 일을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재미없어서면 과감하게 놔야지. 근데 일단 재미있어요. 그리고 재미있으면서 내 경제력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나중에 해결하면 되라고 젊었을 때 생각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안돼요. 나중에 절대 안돼요. 같이 그거 해결해야 돼요. 아마 세대가 다르니까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는 소통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환할 때 빨리 선택을 해야 해요. 선택을 해야 할 때 빨리 선택을 해야 하죠.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이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 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면 언제 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 게 귀촌이에요 귀농 아니고 귀촌. 사실 귀농하러 오라는 데는 되게 많았는데 가족을 떠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까운 곳에 귀촌했죠. 30대 중반 때 우리아이 4살 때 여기 와서 지금 8년 됐어요. 20대도 귀촌을 할 수 있어요. 20대에도 귀촌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잘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못 살고 나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20대는 과오가 많은 것 같아요. 순간적 판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잘 못하고 잘 못 견뎌요. 그거에 비해 저는 생각을 많이 한거죠. 멋있고 되게 재밌고 선배들이 되게 잘해주고 너 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사실 진짜 가면 제가 할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농사 못 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거야 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없었죠. 그 와중에 사회복지도 하면서 귀농 친구들한테 놀러가면서 귀촌을 해서 이걸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20대때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거죠. 오히려 저는 남아있는 사람인거죠. 저는 또 무료로 강화에 홈스테이 만들고 싶어요. 그냥 강화에 와.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죠. 내가 장흥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리산에 가도 있고. 저는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

귀촌했던 친구들. 전국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작은 각자했지만 계속 여기 있으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전국에 내 집이 하나씩 있는 거죠. 일을 할 때 방향을 크게 보고 해야 되요.

짧은 시간에 공동체에 들어가려니 힘든 거죠. 그리고 일단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은 더 쉬워져요.

마을 만들기의 Master Key

- '00은대학'의 해례를 찾아서

00은대학연구소 우민정

◇ 여기 그리고 지금의 마을

마을 만들기는 오순도순 정겹고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구질구질한 일상과의 무수한 마주침이다.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나눠볼라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 시골동네라고 쉽게 집에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개 짖는다고 할머니한테 욕 한 반가지 얻어먹기 십상. 그나마 들어가기 쉬운 상점은 바쁘다고 절레절레, 바쁘지 않으면 그런 데로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시끄럽다 고래고래. 그나마 일이라도 거들며 친해진 시장 할머니는 뭐라도 같이 해볼라치면 내일 죽는 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그래서 큰 포부를 갖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마을에 들어가면 금세 낭패 보기 십상이다. 낭패를 본 이들은(심지어 낭패 본 적도 없는 이들이) 이제 마을은 없다느니, 시골도 이제 틀렸고, 도시는 더 글렀다느니 하소연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실패이지 마을의 실패는 아니다.

생각해보면 마을엔 커뮤니티가 넘치고 넘친다. 내가 온수리대학을 진행했던 온수리에도 수많은 반창회, 동창회, 산악회, 전우회, 노인회, 뛰어노는 동네 아이들까지 수많은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시장 한 켠 순무할머니의 천막 속에서, 현대 정육점 작은 평상 위에서, 온수성당 앞 놀이터에서 두런두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마을이 없다고 언론이, 전문가가, 정치인도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이유가 뭘까. 이미 존재하는 마을을 만들어보겠다고, 우리는 왜 매일같이 '마을 만들기'라는 모순적인 말을 너까리는 걸까. 그건 마을의 어떤 공백 때문이 아닐까. 위에 열거된 커뮤니티 사이사이 숭숭 뚫린 구멍. 그렇다. 여기 그리고 지금 마을엔 '청년'이 없다.

◇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

세상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지갑 속사정이 갑갑한 이는 은행으로 달려가고, 세상살이가 답답한 이는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딸 지도 모른다. '마을 만들기'에도 그런 master key가 있다면 어떨까. 그 어떤 마을에 가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표준매뉴얼'이 있다면 이토록 다른 마을들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것 아닌가.

하지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더 이상 열쇠가 아니다. 열쇠는 제각각인 자물쇠에 맞게 제각각으로 만들어졌을 때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으로는 결국 아무 문제도 풀 수 없다. 마을에 표준매뉴얼이라니 가당치 않다. 도시화, 산업화로 망가진 공동체. 다 엇비슷하겠지, 막연히, 상상하고, 꿈꾸며, 막상 들어가, 부딪히고, 채이다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마을이고, 동네 사람들 마음이다. 절망스럽지만 모든 마을의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열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한다 해도 존재하는 순간 열쇠의 가치는 무효화된다.

◇ OO은대학의 해례

그렇다면 마을의 문은 영영 열수 없는 건가. 결국 마을 만들기의 성공사례는 소수 몇몇 마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 담담히, 그렇지 않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야 오히려 그 답이 보이는 게 마을이다. 마을 만들기는 답을 찾아 맞추는 ‘퀴즈게임’이 아니라 공백을 채우고, 떨어진 사이사이를 메우는 ‘퍼즐게임’인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큰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막막하고, 한 치 앞을 모르겠는 게 마을 만들기다. 그래서 안 맞는 퍼즐을 서로 억지로 끼워도 보고 돌려도 보면서 빼거덕 빼거덕. 제대로 가는 건지, 이제 맞는 건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과정.

다시 돌아가 마을의 공백은 무엇인가. 청년이다. 마을엔 청년이 살고 있되, 마을의 커뮤니티 속엔 청년이 부재하다. 청년은 마을에서 먹고 자지만, 누구와도 함께 놀진 않는다. 만일 청년이 그 공백을 채우고 들어가, 누구든(마을의 다양한 세대)와 만나고 그 사이 사이를 잇다보면 끊어지고 단절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커뮤니티가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에서 훈민정음의 해례가 인간인 소이였던 것처럼 OO은대학의 해례도 청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책자 형태의 표준매뉴얼도 아니고, 온라인 아카이빙도 아닌 그들이, 말 그대로 마을을 쭉시며 돌아다니고 쿵쿵, 발발되며 주민들을 만나는 일. 그것이야말로 저기,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서’ 방방곡곡 마을의 일상을 바꿀 각양각색의 key가 아닌가.

◇ 열정의 무효화에 맞서

대안 공동체의 꿈을 안고 한 마을에 들어간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청년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펼칠 수 있는 지원금도 받았다. 청년의 마음은 분홍빛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대로 올랐다. 마을에서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맘을 설레게 한다. 내 열정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만 같다.

그런데 막상 마을에 들어가면 누구부터 만나야할지 모르겠다. 공무원부터 만나는 건 너무 하향식 같고, 단체를 만나는 건 그 바운더리 안에 갇힐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주민을 만나기로 한다. 길거리로 나서 프린트물도 나눠주고 내가 여기 온 목적도 설명하고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돌아오는 건 어리둥절한 표정과 ‘너 이 일 해서 돈은 어떻게 버니?’

안되겠다 싶어 풀뿌리의 중심 이장님을 만나러 가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아

니냐며 의심스런 눈빛을 보낸다. 답답해하면 할수록,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의심만 살 뿐이다. 뭐든 해보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공간과에서 찾아온다. 이 동네는 간첩이 ‘마을영화제’를 하는갑다.

의문과 의심을 풀 시간이라도 넉넉했으면 좋겠건만, 온갖 정산과 페이지 작업에 정신이 없다. 종이에 생각을 끼워 맞추다 보면, 내가 종이를 만드는 건지, 종이가 나를 조종하는 건지 착란 상태가 온다. 이쯤 되면 내가 대체 왜 여기에 왔는지, 헛갈리다 못해 화가 난다.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긴 하는데 그게 축적되긴 하는 건지, 사업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는지 모르겠다. 지원사업 기간은 짧아서 그 안에 돈을 쓰고 성과를 만들기는 해야겠고. 급하게 이벤트성 행사라도 만들고, 그에 맞춰 페이지 제출하다 보면 ‘대안’이고, ‘가치’고 ‘나발’이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2011년 온수리에 들어간 내내 내 마음이 딱 이랬다. 끊임없이 만나도 만나지지 않고, 말하고 또 말해도 소통되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억눌렀다. 내 모든 열정이 마을에서 무효가 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도, 버릴 수 없던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 청년에게, 그리고 나에게 빠졌던 것은 무엇일까.

‘그냥’이다. 그냥 만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냥 놀기도 하는 일상의 ‘그냥’. 마을을 만나는 일에 이 목적성 없는 만남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누가 목적만 갖고 접근하는 이에게 마음을 열겠는가. 누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겠는가. 목적으로, 돈으로,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그 끝에서 너무도 쉽게 그 한계를 드러낸다. 쉽게, 쉽게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이해 없이 더 쉽게, 쉽게 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강사비로 맺어진 인연은 돈이 없을 땐 다시 만나기가 더욱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천천히, 더 천천히. 나를 너무 설명하고자 안달내지 않고, 더 천천히. 더 들으면서. 나의 목적을 너의 목적으로 착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듣고 또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청년은 스스로의 열정이 무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과 만나며 섞이고 변질되며 성장하고 있음을 비로써 깨닫는 것이다.

◇ 맺으며

마을에 청년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고, (찌꺼 과장하자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강하게 자유를 주장하고, 개인성의 보장을 요구하는 청년의 이면에는 불안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다.

왜 힘들게 같이 살아야 하죠?

묻는 청년의 속뜻은 ‘같이 살기 싫다’는 외침이 아니라, 무한 경쟁사회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같이 함의 즐거움을 누가 좀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이다. OO은대학의 표준매뉴얼은 이 공통의 요청에 스스로 답하는 무수한 OO의 청년과, 그에 화답하는 무수한 OO의 마을, 그들이 같이 사는 이야기이다.

